contents

02
발행인의 글

03
발행축하의 글

06
금능人
손성원 우편집배원
집배원은 내 운명
글 | **이윤영**



10
금능 in
금능포구
금능포구를 아시나요
글 | **차영옥**



14
금능 in
금능꿈차롱작은도서관
도서관에 머무르는 숨결과 함께 시간이 흐르면
글 | **홍임정**

18
금능인게
특집대담 금능마을의 연애와 결혼
금능 사람은 금능 사람끼리
글 | **홍임정**



26
금능인게
자조동·자립동·협동동·근로동
없는 것이 없어 부러움을 사는 금능마을의 4개동
글 | **차영옥**

32
금능인게
금능길 소개
안녕, 배령연대로
글 | **양민숙**



36
금능인게
금능밥상
금능원담에는 멜이 살고 있습니다
글 | **이윤영**



40
금능인게
금능맛차롱협동조합
금능맛차롱협동조합의 프로젝트는 ing
글 | **한명희**



44
금능인게
사라진 것들, 새로운 것들
사라진 공간들, 꿈틀거리는 기억들
글 | **양민숙**



48
금능인게
금능마을의 식당과 카페 소개
금능마을의 맛과 멋, 그리고 쉼
글 | **한명희**

52
금능스케치
금능마을 일정
정리 | **금능리**



53
금능스케치
금능꿈차롱작은도서관 일정
정리 | **편집부**

54
금능스케치
금능마을 조직도
제공 | **금능리**



56
편집후기



금능리, 공유를 위한 시간

발행인 | **현상훈** (금능꿈차롱작은도서관장)

마을 안에서 마을의 모습을 담고, 마을사람들의 정을 담고 있는 '금능인' 네 번째를 엮었습니다. 금능꿈차롱작은도서관장을 맡고 첫 발행물이기도 합니다. 마을리민으로 지켜보았던 금능꿈차롱작은도서관은 공간의 규모를 넘어 참 커다란 조직으로 보였습니다. 많은 장벽을 가능성과 다양성으로 풀어낸 곳이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제 그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 보니, 더 놀라움이 커집니다. 별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었던 과정이, 내부에서는 끊임없이 뛰어다녔던 결과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동참하게 되어 염려되기도 하지만 뜻깊은 동행이 될 수 있겠다는 설렘이 있습니다.

이번 '금능인'은 좀 더 금능 리민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마을 안에서 더 끈끈하게 엮여 있는 4개의 동을 만나보았습니다. 함께 공유했던 공간들을 불러오기도 하였고, 함께 설레었던 시간을 대담 형식으로 풀어보기도 하였습니다. 소소한 일 같지만, 누군가에게는 중요하거나 설레는 소식을 전하고 있는 금능사람을 만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금능인'을 엮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언제나 그렇듯이 애써 주시는 편집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또한 금능꿈차롱작은도서관을 잘 이끌어주신 김성수 전 관장님과 '금능인' 발간에 애정을 주신 송문철 금능리장님께도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지면을 통해 금능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공유해 보셨으면 합니다.



4 .indd 2 2022-03-23 5:37:13

오늘은 함께 걸어왔던 과정을 기록하는 일

금능리장 | **송문철**

'금능인' 4호가 발간이 되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그리고 사람과 이야기를 묶어 금능리만의 정체성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과정을 함께 하게 되어 기쁩니다. 금능꿈차롱작은도서관 현상훈관장님을 비롯하여, 편집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 전합니다.

금능리라는 물리적 공간 안에서, '금능인'이라는 관계적 공간을 만나봅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해 온 시간이 지면 곳곳에 정으로, 사랑으로 담겨져 있음을 느낍니다. 이 안에는 금능리의 바람소리가 들어 있고, 파도소리가 들어 있습니다. 또한 금능리의 사람들이 들어 있고, 금능리의 거주 공간도 들어 있습니다. 모두가 지금 이 시간, 우리의 금능리로 향하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개인의 삶을 바꿀 수 있듯이, 금능리는 많은 사람을 품고 성장시켰습니다. 마을 안에서 공동체의 정신으로 고통을 함께 나누고, 기쁨 또한 함께 나눴습니다. 함께 걸어왔던 과정과, 이 과정을 기록하는 또 다른 과정이 금능리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어떠한 사실이 누군가의 기억에 의존한 채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아 바르게 전달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결국 금능리의 오늘을 그대로 물려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금능인'의 발간은 계속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코로나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모두가 지치고 힘들 텐데도 잘 참고 견디고 버텨주시는 금능리민들을 만날 때면 마냥 감사하기만 합니다. 부디, 더 이상 지치지 않고 함께 서로를 위로하고 웃음 나눌 수 있는 시간이 곧 오기를 바랍니다.



4 .indd 3 2022-03-23 5:37:13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버팀목이자 지혜의 등불

한림읍장 | **김성철**

하얀 백사장과 이국적인 야자수, 바다 한가운데 병풍 역할을 하는 비양도 등 천혜의 자연을 품은 행복마을 금능리!!

금능 사름들의 작은 이야기와 삶의 현장을 고스란히 담아내며 주민들의 애환을 같이 공유하는 '금능인' 4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2017년 첫 창간 이래 '금능인'은 주민들과의 소통과 다양한 삶의 이야기 뿐만 아니라,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고 새 역사문화를 재조명하면서 금능리를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작은 목소리 하나 하나 소중히 듣고 따뜻한 시각으로 담아내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버팀목이자 지혜의 등불로서의 마을소식지로 금능 사름들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위드코로나로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이 시기에 다시 한 번 '금능인' 4호 발간을 축하드리며, 금능리 마을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4 .indd 4 2022-03-23 5:37:14

금능리만의 언어를 읽어내려가는 시간

제주특별자치도의원 | **박원철**

마을의 이야기를 차롱에 담아 소식지로 발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어김없이 '금능인' 발간 소식을 접합니다. '역시 금능, 역시 꿈차롱' 이란 말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어린왕자』의 작가 '생텍쥐페리'는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누군가는 성공하고 누군가는 실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차이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다른 사람과 함께, 다른 사람을 통해서 협력할 때에야 비로소 위대한 것이 탄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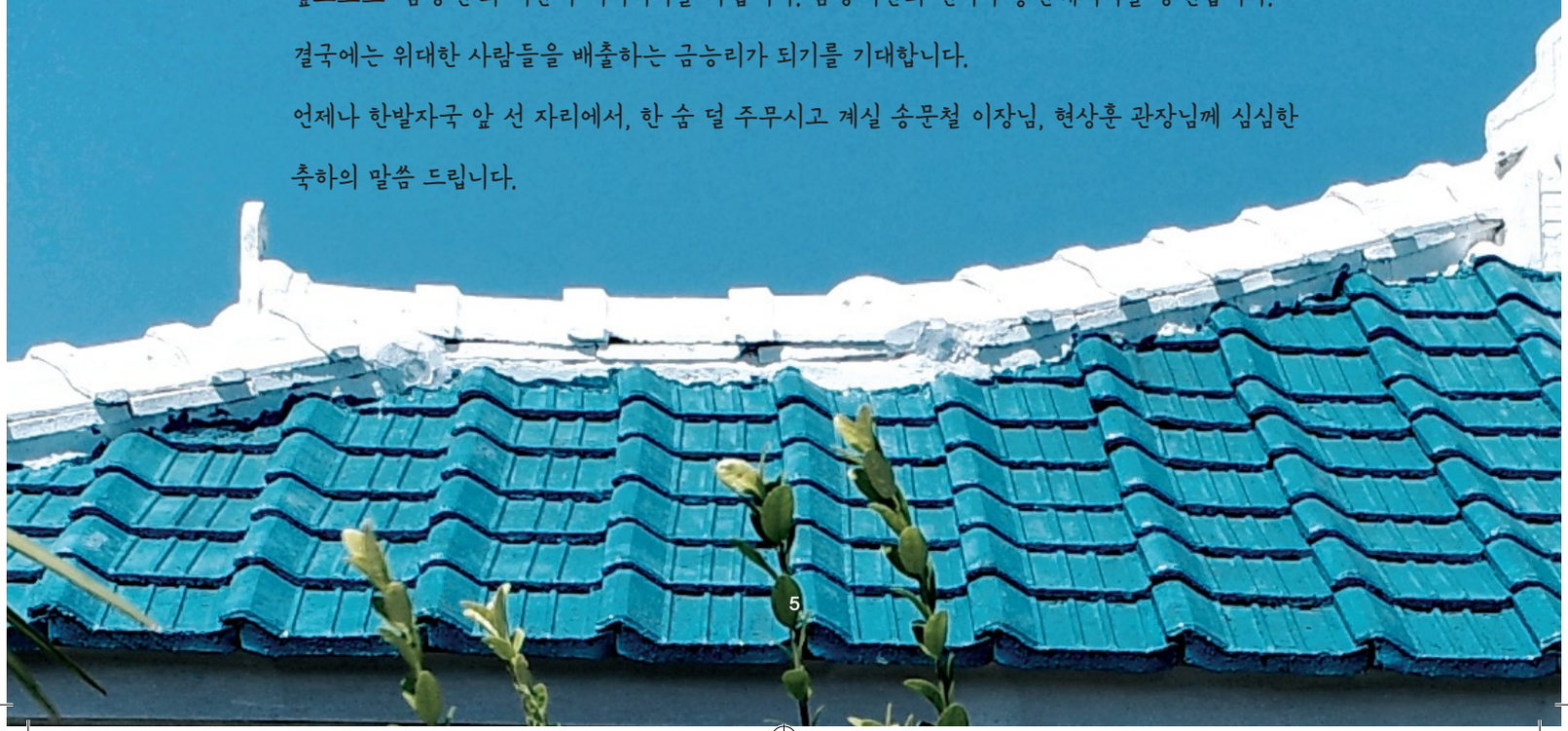
이 내용은 우리의 관계 맺기에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마을 모습도 이런 모습이었으면 합니다. 마을 리더에 따라, 혹은 마을 사업에 따라 성공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 안에서 구성원의 역할은 바로 이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함께 힘을 모으고, 서로 협력할 때 마을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금능인'을 통해 그런 마을에 더 다가선 것 같습니다. 마을을 다각도로 들여다보면서, 어제와 오늘을 잇는 모습이 정겹습니다. 금능리만의 언어를 읽어 내려가는 시간은, 한층 마을하고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금능인'의 시간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금능리만의 언어가 충만해지기를 응원합니다.

결국에는 위대한 사람들을 배출하는 금능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언제나 한발자국 앞 선 자리에서, 한 숨 덜 주무시고 계실 송문철 이장님, 현상훈 관장님께 심심한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4 .indd 5 2022-03-23 5:37:14



집배원은 내 운명

글 | **이윤영** · 사진 | **양성혁**

손성원 우편집배원

4 .indd 6 2022-03-23 5:37:15



친절한 성원씨

금능에서 나고 자란 손성원집배원은 1991년부터 한림우체국에서 집배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역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봉사활동에 앞장서 지역 주민들에게 친절한 집배원이라는 칭찬이 자자하다.

한림우편 집배원으로 30년째 한림 우체국에서 일하고 있는 손성원 집배원(49세)은 늘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현재는 한림우체국 팀장으로 손성원 집배원은 금능 마을뿐만 아니라 한림읍 관내에 성실의 아이콘이다.

무슨 일이든

어릴 때 가정환경은 집이 워낙 가난하다보니 집안 살림 형편에 도움이 되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해야했다. 마침 여동생이 제주신문사 한림보급소에 다녔고 동생소개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다. 부모님이 보리농사를 지으셨는데, 여름 수확 철이 다가오면 보리 수확하느라 장남의 책임감과 성실함으로 학교를 빠지는 날이 많았다. 그러다보니 간신히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진학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는 밭농사를 지으면서 서귀포 지역까지 귤을 따러 가고, 아버지는 땔감을 구하러 산으로 가면 남동생과 함께 경운기에 땔감을 실고 집으로 돌아왔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만 18세가 되니 방위로 입대하라는 통지가 날아왔다.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며 학업도 포기하고 지내왔기에 외숙모, 외삼촌이 병무청으로부터 장남이라 생계유지에 곤란함이 있다는 것을 어필하고 군 입대를 면제 받았다.

집배원으로 거듭나던 날들

어머니가 허락해서 시작하게 된 우체국 일이었다. 손성원 집배원은 가정형편이 어렵지만, 신문배달을 하며 성실히 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배달보다는 우체국 용역 청소 업무를 해보겠냐는 제의를 우체국 국장님께 받았다. 생각해보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날 우체국 직원이 다시 한 번 설득하러 집으로 찾아왔다. 어머니가 집안일을 돕는 것보다 공무원이라는 안정적 직업과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미 우체국 일을 하겠다고 확답을 해버리신 후였다. 어쩔 수 없이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우체국에 발을 들여 놓게 되었다. 어머니가 버스비 50원(당시)을 지원해주셨다. 우체국 청소와 매일 아침 태극기 깃발 올리는 일과 내리는 단순한 업

4 .indd 7 2022-03-23 5:37:15

무였다. 사무실에서 시키는 허드렛일을 하면서 숙직실에서 잠을 자고, 자장면을 먹으며 일을 한 결과, 우체국에서 조건부 계약으로 고등학교 때부터 정직원 10급부터 시작하게 되었다.

우체국 전보 아르바이트도 잠깐 했었다. 7시에 출근을 해서 7시 30분이면 우편차가 도착했고, 8시쯤되면 오토바이로 배달을 나갔다. 갈색 우편 가방 안에 10개미만의 우편물과 등기, 농민신문만 배달하면 되었던 시기였다. 국장님 허락 하에 배달일이 빨리 마쳐지면 집안일을 도울 수 있도록 배려받던 시절이었다.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한림읍 일대 주소를 다 외웠던 것이 배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지금은 우편원으로 이끌어 주었던 어머니에게 그 누구보다도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는 마음을 손성원 집배원은 고백했다. 결과적으로는 직장에서 6급까지 승진했고, 인정받으며 장관상까지 받게 되었다. 현재는 한림, 한경 집배 팀장으로 14명의 집배원을 이끄는 팀장으로 승승장구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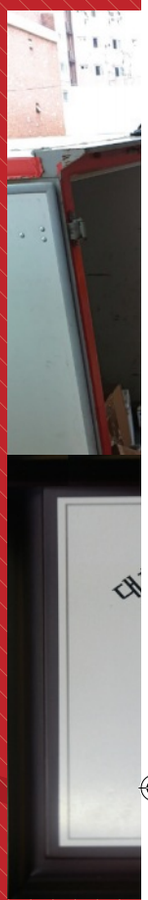
장관상도 받았다고요

'2009년 대한민국 최고 기록 공무원'에 선정될 정도로 타의 모범이 되는 집배원이다. 이 상은 전국 1만 6천여 집배원 중 최고의 집배원에게 돌아간다. 우편배달 업무 외에도 지역사회 봉사와 고객감동 실현에 공이 많아야 선발될 수 있다. 집배원의 하루 우편물 배달 거리는 평균 116.8km(연 누계 약 4만2038km)로 서울과 제주를 26회 왕복하는 거리에 속한다.

그리고, 2016년에는 우정사업본부 전체 집배원 중 최고의 집배원을 뽑는 '2015년도 집배원 연도대상'에서 동상을 수상했다.

kbs 제주가 좋다 방송 출현까지

세종시에 가서 장관상을 수상 하고서 ' kbs 제주가 보인다' 생방송에 출연을 하게 되었다. 그때 3살 된 아들과 아내가 함께 응원해줬는데, 방송 할 때는 아나운서랑 둘만 앞에 서서 5분정도 묻고 답하는 인터뷰였었다. 너무 긴장한 나머지 대본이 있어도 눈앞이 하얘지고, 글씨가 하나도 보이지 않아서 머릿속이 백지상태라 무슨 말을 했는지 당황했던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한다. 텔레비전이랑 신문에 보도가 되면서, 배달을 가면 박수 쳐주면서 알아봐주는 어르신들도 생겨났다. 처음에 가족들은 얼마나 큰 상인지 실감을 못했는데, 장관상도 받고 방송에 나오게 되면서 자랑스러워했다.



봉사는 나의 힘

우체국에서 일할 때는 우편원 조끼를 입지만, 휴일에는 365봉사단 초록 조끼로 갈아입는다. 봉사단으로 풀베기를 비롯해서,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도배, 싱크대 설치, 방충망 등등 장애인 단체에 생필품을 전달하는 등 온기와 사랑의 손길도 계속 현재 진행형이다. 금능청년회 활동은 45세가 되면 자동탈퇴가 되지만, 365봉사단을 통해 풀베기 활동이나 마을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마다 손을 보태주고 있다. 앞으로도 365봉사단을 통해 금능 청년회 활동에 늘 힘이 되어 줄 각오가 되어있다.

종종 퇴근 후 방범대 활동도 겸하고 있다. 자율 방범대로 한림이랑 귀덕까지 두루 치안을 살피며 한동안 채소 값이 폭등하면서 서리를 하는 나쁜 사람들을 감시해서 농민들의 재산을 지켜주기도 하였다. 또한 여름철이면 해안도로에 성희롱 범이나 텐트 안에서 나쁜 마음을 먹고 연탄을 피워 자살을 하거나, 텐트 물건들을 훔쳐가는 사람들을 cctv 카메라처럼 지키고 보호해 주는 봉사를 틈틈이 하고 있다.

내가 꿈꾸는 금능공화국

공화국이라는 어감이 그렇긴 하지만, 금능이 고향이고, 금능에서 나고 자라 금능인 우편원들끼리 모임을 만들고 싶었다. 같은 일을 하기에 동지애도 느끼고, 서로 부모의 안부를 대신 물어가며 어르신들의 일상도 전달해주는 메신져의 역할까지 해내고 싶은 바램

4 .indd 8 2022-03-23 5:37:16



위 | 하차 작업 중인 손성원 집배원

아래 |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대한민국 최고기록공무원 인증서

이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금능공화국을 꿈꾼다. 친구의 어머니도 본인의 어머니처럼 생각하면서, 알뜰살뜰 살피는 따뜻한 이웃 네트워크를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어르신들의 손발이 되어 심부름도 해주고, 필요한 물품들도 사다가 전달해주는 따뜻한 온정이 넘치는 배달부가 되어 드리고 싶단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까운 지역에 살고 있어 이웃을 돌아보고 도와주려는 마음이 통하는 집배원이 많아져야 하는데 현재 금능에 거주하는 집배원 양성혁, 손석훈, 손용훈, 이성필 4명의 집배원이 든든한 조력자들이다. 앞으로 금능인으로 우체국 일을 하고 싶은 사람에게 언제나 손을 내밀어 이끌어 주는 동아줄이 되겠다는 마음을 전했다.

앞으로의 계획

수박 밭에 택배 물건을 실으러 가면 주인이 수박 2통을 더 챙겨주실 때가 있다. 그러면 인근 경로당에 드시라고 나눔을 한다. 직접 먹는 것보다 어르신들이 드시고, 잘 먹었다고 전하는 고마운 말에 하루의 피로가 다 녹아내린단다. 어른들의 웃음은 그야말로 비타민이라고 할 수 있다.

우체국은 만 60세가 정년퇴임인데, 건강이 허락되는 한 명예퇴직보다는 정년퇴임으로 우편원 근무인생의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어했다. 현재 한림, 한경 팀장으로서 우편함 설치 등 집배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더 앞장서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아무리 힘들어도 캔디노래를 좋아한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수눌음 정신을 실천하며 행복을 이어나가고 싶다. 앞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행복을 배달하는 서비스를 충실히 수행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더 관심을 갖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마무리

개인적으로 손성원 집배원과 남편은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이자 현재 한림우체국 직장 동료로 일하고 있다. 남편에게 집배원 일을 해보라고 권해 준 고마운 친구이자 직장선배로 결혼할 때 처음 소개를 받았었다. 그때 느꼈던 듬직함과 남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는 열정가득 성실의 아이콘 이미지는 여전한 것 같다. 남편을 시작으로 손성원 집배원이 꿈꾸는 금능공화국에 많은 금능집배원들이 손에 손을 잡고 아프리카 '우분투'처럼 혼자만의 독주가 아닌 함께 잘 사는 금능공동체를 이루고 싶은 마음을 응원한다. 人·IN

4 .indd 9 2022-03-23 5:37:17

금능포구.를. 아시나요.

글 | **차영옥** · 사진 | **한명희**

금능포구

금능포구는 제주시 중심지에서 서쪽 일주도로를 따라 35km 지점에 위치해 있다. 올레길 14코스를 경유하고 있어서 올레꾼들이 많이 다녀가는 곳이기도 하다. 금능포구는 동부두와 서부두로 나누어져 있다. 두 개의 부두가 서로 다른 역할을 한다. 동부두는 어선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으며, 서부두는 해녀들이 잡아오는 해산물들을 출하전까지 보관하는 부두로 사용하고 있다.



일러스트 © **안민승**

4 .indd 10 2022-03-23 5:37:18

첫째, 예전에는 금능포구에 자리배가 많아서 금능바다에서 잡힌 자리는 연하고 맛있기로 유명했다고 한다. 지금은 어획량이 줄고 자리가 다른 먹거리에 밀려 찾는 사람도 줄게 되자 금능포구에서 자리배가 자취를 감추게 되었지만, 어촌계에서 관리하는 덤장배가 있어서 한겨울을 제외한 모든 계절에 다양한 생선들을 시장까지 가지 않아도 도매가격에 싱싱한 고기를 사 먹을 수 있어서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다. 지금도 날이 좋은 아침이면 금능포구에서 덤장배를 기다리는 지역주민들의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덤장은 마을어장에 그물을 설치해서 고기를 잡는 어구를 말한다. 비교적 해안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마을어장에 그물을 설치한다고 한다. 금능덤장은 현재 일성콘도 앞 어장에 설치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덤장은 제외한 대부분의 배는 개인적으로 낚시할 때 이용하는 배들 뿐이다.

둘째, 예전에는 제주도 해안마을 부녀자들은 대부분이 해녀였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그 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지금은 금능어촌계의 소속된 해녀 70여명만이 물질을 하고 있다. 제주해녀는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하고 고유한 문화로 세계인들이 인정해 세계유네스코에 등재되었다. 그러한 분들의 희생으로 금능포구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금능포구가 가족단위 관광객 및 지역주민들에게 낚시 명소로 알려지고, 지금은 여러 방송국에서 드라마 장소로도 유명해져 많은 방송국에서 금능포구를 찾아오고 있다.



4 .indd 11 2022-03-23 5:37:18

셋째, 금능포구에서 바라보는 일몰은 아주 장관이다. 손만 뻗으면 만질 수 있을 것만 같은 비양도의 실루엣이 하늘의 붉은 빛으로 인해 시시각각 변해가는 찰나의 순간들이 구름과 파도가 한 방향으로 흐르는 풍경이 신기해서 특별하지 않을 수 없는 장소이다. 특히, 팔각정이 있어서 편히 쉬어 갈 수 있는 곳이도 하다. 방파제는 다른 마을 방파제와 달리 동부두와 서부두의 각각의 장소에 길게 뻗은 방파제가 사람들이 편하게 앉아서 경치를 감상하기에 최적의 장소이며, 산책하는 분들에게도 아주 좋은 산책코스이다.

넷째, 금능포구에 가면 해산물 요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맛집 식당이 있다. 물회와 조림, 죽, 생선매운탕이 아주 유명한 금능포구식당과 딱새우 찜을 메인으로 하는 피어22식당이다. 제주도의 여름음식의 대표메뉴하면 물회(자리,한치)와 조림(쥐치,우럭)를 빼놓을 수 없는데 그 대표적인 음식을 하는 곳이 금능포구식당이다.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꽤 알려져 유명한 맛집이다. 그리고 피어22 식당은 찜요리 전문점인데 딱새우와 함께 옥수수, 감자, 각종 해산물을 찜으로 쪄서 먹는 요리라고 한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걸 보니 확실히 맛집은 맛집인가 보다.

다섯째, 금능포구에는 양작시라는 농어촌 민박집이 있다. 제주의 전통가옥을 리모델링해서 민박집으로 운영하는 곳이다. 가족단위와 연인단위 관광객이 자주 이용한다고 한다. 힐링하기 좋아 아주 인기가 좋은 곳이다. 포구 옆이라 집 마당의 평상에서 바라보는 에메랄드 빛 바다를 감상하기에 최적의 장소이다. 그리고 다른 카페와 달리 바다를 보고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과 바다를 배경으로 바베큐 요리와 생맥주를 맛볼 수 있는 금능반지하 카페가 있다.

관광객들의 발걸음 멈추게 하는 금능포구, 지금도 아름다운 추억이 흐르고 있는 금능포구에 많은 발걸음이 오가길 희망한다. ㅅ·IN





4 .indd 12 2022-03-23 5:37:19

해녀 마음

김옥윤
89세, 금능리민

요건 꼭 잡고 가야지
호미로 찍어 발잡고 잡아당기다
발 끊고 도망 가버려
억울해서 귀 눈 캄캄

나이 들수록 친구같은
전복, 소라 키워주는 바다
도망가는 문어
쫓아가면서도 숨 안 차
잡는 것이 더 좋아
먹는 것 보다 더 좋아

이여도 사나 이여도 사나
비양도 배타고 가서
물에 들면 딴 세상

참은 숨 내쉬려고
왕전복에 물린 호미
놓아두고 올라오는 열 여섯 마음
잊어버릴까 가슴 탕탕
다시 들어가 없으면
억울해서 귀 눈 캄캄

눈 번쩍 뜨고 있는
문어 보이면 가슴 탕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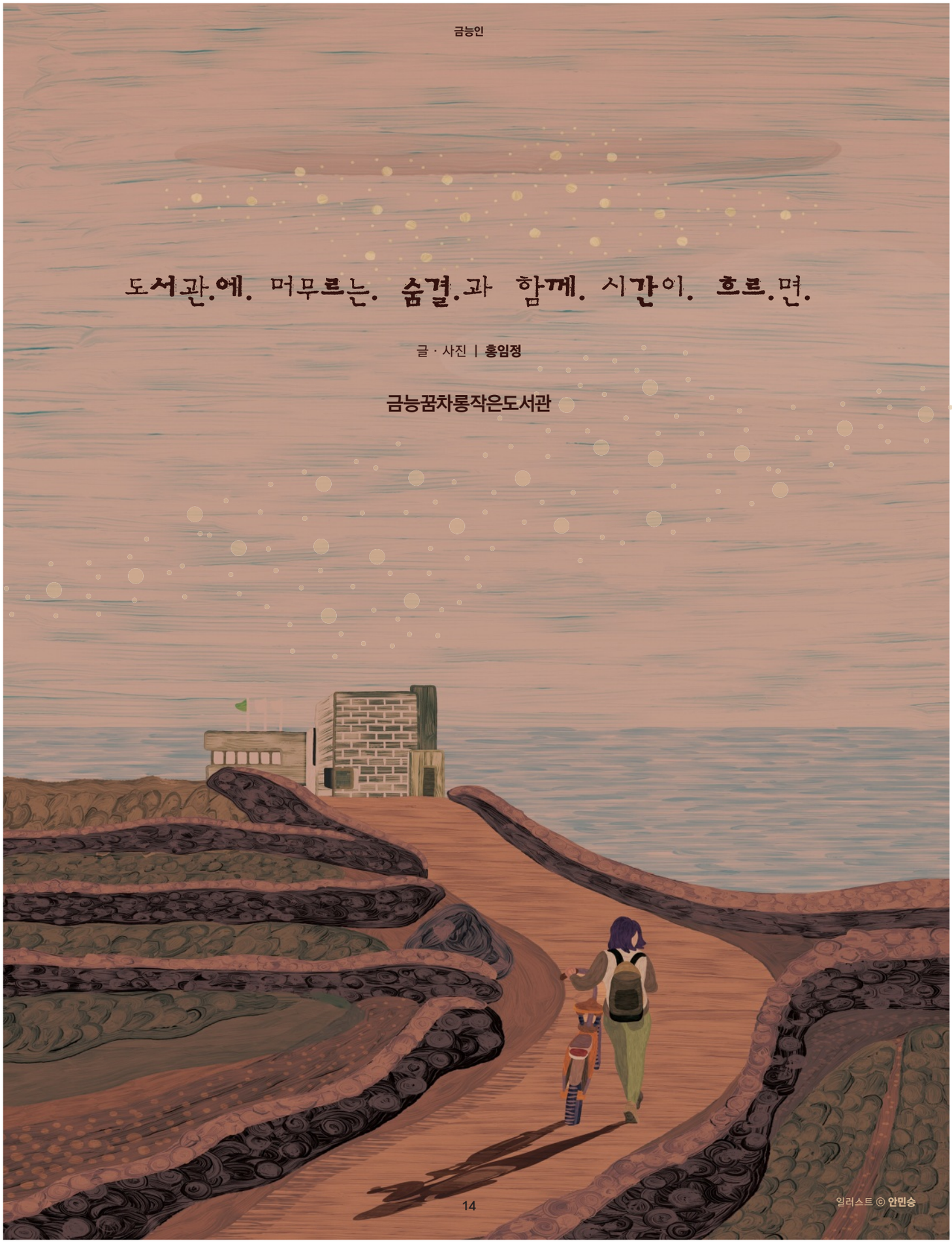
사진 © 한명희

4 .indd 13 2022-03-23 5:37:20

도서관.에. 머무르는. 숨결.과 함께. 시간이. 흐르.면.

글 · 사진 | **홍임정**

금능꿈차롱작은도서관



일러스트 © 안민승

4 .indd 14 2022-03-23 5:37:28





1 | 금능꿈차롱작은도서관의 옛 모습
2 | 2020년 6월 신축 후 재개관한 금능꿈차롱작은도서관

2009년도에 개관해 지난 10여년 간 도서관의 터전이 되어 주었던 푸른 기와지붕의 옛 리사무소 건물이 헐리고, 그 자리에 검은 대리석으로 마감한 말끔한 현대식 건물이 새로 지어져 2020년 6월, 작은 북콘서트와 함께 금능꿈차롱작은도서관의 재탄생을 알렸다. 무언가 한 단계 크게 발전할 때마다 붙이는 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른바 2세대 금능꿈차롱작은도서관인 셈이다.

새로 단장한 금능꿈차롱작은도서관에 대한 반응은 크게 두 가지인데, 우선 압도적인 반응은 세련된 외관, 잘 갖추어진 시설, 공들인 인테리어 등에 대한 찬사다. 방송시설을 갖춘 프로그램실과 오붓한 카페 공간, 아이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다락방과 동굴 같은 독서 공간, 또한 엘레베이터와 장애인화장실까지 두루 갖추었으니 얼마나 근사해졌는지에 대해서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겠다.

두 번째 반응은 약간 비주류적인 감성으로 예전의 그 낡고 소박했던 모습이 '더 좋았다'는 것이다. 공공도서관에서 얻어온 삐걱거리는 나무의 자들과, 두 번의 모퉁이를 돌아야 2층에 다다르는 낡은 계단들, 경로당에서도 보기 힘든 한쪽 구석에 마련된 전기판넬의 난방공간(개인적으로 내가 가장 좋아했던 공간이다), 바다를 바라보기 위해 샤시 창문을 열때마다 나던 쇳소리 등의 기억들인데, 사실 그것이 실제로 더 좋은 환경이었을 리는 없고 다만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과거에 대한 아쉬움과 그리움의 다른 표현일 것이다. 거기에는 그 낡은 도서관을 오르내렸던 자신의 지난 시간들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생각해본다. 낡은 옛 것이 새 것보다 '더 좋았다'라고 기억되게끔 하는 게 무엇일까 하고. 그것은 앞서 말했듯 그곳에 머물렀던 자신의 발자국과 곳곳에 묻어있는 손자욱들, 그것들과 함께 낡아가던 자신을 포함한 시간들에 대한 애정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새로 지어진 도서관 건물도 오가는 발걸음과 함께, 온기 닿는 손길과 함께, 머무르는 숨결과 함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 더 좋아지는 마법의 공간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물론 지금도 흠잡을 데 없이 좋지만 말이다).

4 .indd 15 2022-03-23 5:37:29

그래서 지금부터는 도서관 곳곳에 머물며 온정의 마법의 가루를 뿌리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금능꿈차롱작은도서관 신축건물의 새로운 공간들을 소개해볼까 한다.

우선 도서관 문이 열리는 4시 조금 전에 도서관에 오면 2층 현관으로 이어지는 외부계단에 노란색 조끼를 입고 옹기종기 모여앉은 할머니들을 만나볼 수 있다. 금능꿈차롱작은도서관을 매일 깨끗하게 청소해주시는 시니어클럽 할머니들로, 언제나 출근 시간 이전에 와서 층층마다 앉아 도서관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사서인 내가 "기다리지 마시고 4시 이후에 오세요." 하고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은 노인들이난." 이라고 하시지만 청소가 끝나고 동굴(동굴처럼 만든 책을 읽는 공간)에 앉아 두런두런 나누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밭일이나 해녀일이 끝나자마자 달려온 바쁜 발걸음들이다.


4


3

두 번째 마법의 공간은 바다로 향한 커다란 창문 아래의 열람 좌석들, 그중에서도 가장 안쪽의 1인석으로 금능주민 강명자 씨가 애용하는 자리다. 직장과 학업을 병행하고 있는 그녀는 한수풀의원의 간호사 업무를 마치면 귀가해 집안 일을 마친 후 편한 복장으로 갈아입고는 한 손에 커다란 노트북을 들고 도서관에 오곤 하는데, 지난 여름에는 학교에 등교하듯 거의 매일 도서관에 와서 항상 똑같은 자리에 앉아 도서관 문을 닫을 때까지 책을 붙들고 있었다. 과제가 많고 시험이 어려워 힘들다고 하면서도 직장과 집안일로 긴 하루를 마친 후 밤바다와 비양도의 불빛이 바라다보이는 창에 면한 구석자리에 앉기 위해 마침내 도서관에 들어서는 그녀의 얼굴은 그 어느때보다도 환하다.

세 번째로 마법이 진행 중인 공간은 금능꿈차롱작은도서관의 한 축인 프로그램실이다. 이 장소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꿈차롱시인학교'가 운영되고 있는데, 시인학교의 거의 모든 시창작 강의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고 있는 수강생이 있다. 옹포리에서 냉면전문점 '연화몽'을 운영하고 있는 김연수 씨로, 말하자면 꿈차롱 프로

4 .indd 16 2022-03-23 5:37:29

그램실의 1등 이용자라고 할 수 있겠다. 올 여름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강의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프로그램실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가 선선한 가을바람과 함께 조치가 완화되어 프로그램실 문이 다시 열리던 날, 가장 먼저 도서관에 도착한 이 역시 그녀였다. 그녀는 한 손에 커피를 든 채 날아갈듯한 발걸음으로 프로그램실로 들어섰고, 오랫동안 냉랭했던 프로그램실은 곧 그녀의 커피 향기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마법의 공간은 금능꿈차롱작은도서관의 시그니처라 할 수 있는 다락방이다. 도서관 맨 안쪽에 마련된 서가로, 나무로 마감된 두 평 남짓의 마루에서 계단을 따라 복층으로 이어진 구조이며, 층계와 복층 벽면에 그림책과 동화책들이 가득 꽂혀 있다. 이 공간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닌 숫자 '800', 도서관 십진법 분류에서 문학 분야를 나타내는 숫자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가장 많이 찾는 공간이어서 특정인을 찾을 수 없는 까닭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실제로 아이들을 위한 문학책들을 특별히 이 서가에 배치시켰기 때문이다. 순서대로 하자면 원래 이곳은 아동 000번대가 시작되어야 하는 서가였다. 도서관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 만든 공간에 아동 800번대, 그러니까 상상과 모험이 가득한 이야기책들을 놓아둔다는 것에 대해 책과 도서관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것이다.

추가로 짧게 한 공간 더 소개하자면 도서관 입구 쪽 복도 한 켠에 자작나무 탁자와 원두커피 머신이 마련되어 있는 꿈차롱 카페. 작년에 꿈차롱시인학교를 마치고 만든 시집『금능에 문패 하나 걸고 싶다』에 수록된 시「금능 밤 아홉시의 소설가」에서 김신숙 시인은 '홍임정 사서쌤이 꿈차롱작은도서관 / 문 닫고 집에 가는 건 밤 아홉시' 라고 썼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 나는 밤 아홉시 근무가 끝나면 곧잘 여기 꿈차롱 카페에 앉아 '글을 쓰며 귀신이 힘이 셀까, 글자가 힘이 셀까 귀신 나오기 전에 글자 속으로 쏙 들어가' 곤 한다. ㅅ·IN

3 | 금능꿈차롱작은도서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시는 금능마을 할머니들
4 | 비양도가 보이는 자리에 앉아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강명자 씨
5 | 꿈차롱시인학교 프로그램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김연수 씨
6 | 금능꿈차롱작은도서관의 시그니처 공간인 다락방 서가





4 .indd 17 2022-03-23 5:37:30

금능 사람은 – 금능 사람끼리

| 특집 대담 금능마을의 연애와 결혼 |

녹취 및 글 | **홍임정** · 사진 | **양성혁**



일러스트 ⓒ 안민승

4 .indd 18 2022-03-23 5:37:30

대담 | 60대 부부 **고승범·양춘선, 문영남·양영자** 50대 부부 **김성진·문미열** 40대 부부 **박윤성·김미복**





8월의 늦은 저녁 금능리사무소 2층에 불을 환하게 밝히고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던 금능마을의 연애와 결혼을 주제로 한 대담이 마무리될 무렵, 자리에 참관해 가만히 듣고 있던 김성수 전 이장(제27대, 제28대)이 젊은 시절에 있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를 꺼내놓았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첫 직장에 들어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금능 출신이라는 것을 알자 상사들이 밑도 끝도 없이 '너희 금능 남자들은 좋겠다. 금능 남자들은 장가갈 걱정을 안해도 되잖아.'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으니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도 너희 동네에서 다 잡아가잖아.' 하며 웃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과연 그렇길래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함께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자 다들 한마디씩 보태며 이제야 문득 깨달은듯 새삼 놀라워했다.

"그러고보니 다른 동네 사람들로부터 금능은 정말 이상한 동네라는 말을 종종 듣곤 했어요. 너희는 너희끼리 결혼한다고요."

"그뿐 아니라 사돈끼리 결혼해 겹사돈을 맺는 경우도 왕왕 있었잖아요."

"저희 부모 세대에서는 금능 사람끼리 결혼한 경우가 한 60퍼센트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누군가 쐐기를 박듯 말했다.

"저희 가족은 거의 전부인 걸요."

그동안 『금능인』에서는 세대별 금능주민을 모시고 금능마을의 여러 문화에 대해 시대별로 이야기를 나누어보는 대담 자리를 마련해 왔는데, 금능의 연애·결혼 문화를 다루는 이번 호에 이르러서는 다른 마을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금능마을만의 고유한 특징을 발견하게 된 것 같다. 사랑을 싹틔우고 부부의 연을 맺어 가정을 이루는 가족공동체의 울타리가 금능리 마을공동체의 울타리 안에서 즐겨 이루어진다는 그것이다. 이를 두고 '금능은 마을에서 다 잡아간다', '금능 사람은 끼리끼리' 같은 우스갯소리들도 생겨났지만, 그 표현 안에는 한 마을 사람에 대한 뿌리 깊은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기둥 같은 사랑, 그리고 뻗어나간 가지들에서 이윽고 열매들이 맺히길 기다리는 앞으로의 소망까지 모두 들어 있음을 이번 대담 자리에 모신 부부들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이번 『금능인』에서 펼쳐보이는 금능마을 이야기는 마을공동체의 60퍼센트가 가족공동체에 가까웠던 금능 사람끼리 연애하고 결혼한 부부들의 생생한 경험담,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동네에서 다 잡아간' 이야기다.

4 .indd 19 2022-03-23 5:37:30

양민숙

금능의 놀이 문화, 금능의 학교(재릉초등학교) 문화, 금능의 음식 문화를 다루었던 지난 세 번의 대담에 이어 이번에는 금능의 연애·결혼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금능에서 나고 자라 금능 사람과 연애하고 결혼하여 지금까지 금능에서 살고 계신 순도 100%의 금능 부부들을 모셨습니다. 금능의 연애담, 결혼담의 대표선수로 뽑히신만큼 다양하고 재미있는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우선 시간을 거꾸로 되짚어 가장 오래된 이야기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서로 어떻게 처음 만나게 되셨는지 첫만남이 무척 궁금합니다.

문영남 아내 양영자

저희 부부는 한 살 차이입니다. 어릴 때부터 남녀 구분 없이 함께 모여 놀았고 아내와는 오빠, 동생 하면서 서로의 집에 드나들던 사이였다가 열아홉 살 즈음부터 자연스럽게 사귀게 되었죠. 사귀고 나서도 주로 집에 찾아가서 만났어요. 어쩔 땐 보리짚 구멍 같은 곳에 숨어서 만나기도 하고요(웃음).

양영자 남편 문영남

원래 알던 사이니까 특별히 첫만남이랄 건 없었어요. 같은 동네라 부모들끼리도 친해서 훗날 시아버지 될 분이 저희 집에 곧잘 놀러 오곤 했어요. 그래서인지 저희가 연애한다고 하니까 반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고승범 아내 양춘선

저는 젊은 시절에 배를 타러 다녔습니다. 그러다보니 어느새 친구들은 가정을 다 꾸렸는데 저만 아직 장가를 못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이 지금의 꿈차롱도서관 자리에 있던 옛날 건물 옥상으로 저를 불러서 가 보았더니 아가씨가 한 명 있더라고요. 지금의 아내였죠. 친구들이 저를 딱하게 여겨 소개팅을 시켜준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아내와는 한 동네고 나이 차이도 한 살 밖에 안 났지만 서로 잘 모르는 사이였어요. 제가 성격이 얌전해서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데다가 또 밖으로만 다녔으니까요. 그렇게 지금의 아내를 소개받았는데 처음엔 저를 싫다고 하는 거예요. 속상해서 술과 담배를 조금 많이 했죠.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께서 사정을 아시고는 부모님들끼리 중매 자리를 만드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사귀게 되었어요.

양춘선 남편 고승범

아니, 처음에 싫었다기보다 여러 번 만나보다가 사귀어야 하는데 한

60대 부부 **고승범·양춘선**



4 .indd 20 2022-03-23 5:37:31



60대 부부 **문영남·양영자**

두 번 만나서 서로 잘 알지도 못하는 중에 사귄다고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귀는 게 아니라고 부인한 것이 남편은 사귀기 싫다고 하는 걸로 오해를 한 모양이에요. 어쨌든 이후로 부모님들이 나서주셔서 사귀게 되었죠.

김성진 아내 문미열

저희 부부는 처음부터 잘 아는 사이였어요. 아내가 여동생의 동창인데다가 집도 가까웠거든요. 그래도 그냥 아는 사이였는데 맺어진 것은 제가 시내에서 직장에 다닐 때였어요. 하루는 한림에 잔치가 있어서 갔는데 고모부께서 저를 어느 장소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았더니 지금의 장인어른과 아내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당시에는 중매라는 인식 없이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다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나눈 게 다였어요. 그때는 아내도 시내에서 직장에 다닐 때여서 이후로 종종 만나게 되었는데 그게 시작이었죠.

김미복 남편 박윤성

저희는 동갑내기 초등학교 동창입니다. 솔직히 초등학교 때는 별로 안 친했어요. 그런데 성인이 된 후에 초등학교 동창회를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 문제로 옛친구들과 다시 만나서 의논하게 되면서 지금의 남편도 다시 만나게 되었죠. 만나다보니 마음이 잘 맞더라고요.

박윤성 아내 김미복

사실 동창회 문제로 만날 당시에 저희 둘 다 애인이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내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기에 저는 사귀던 애인과 마음이 멀어지고 있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의 아내가 좋아지고 있었죠. 얼굴도 너무 예쁘고 계속 마음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만우절에 아내에게 사귀자고 말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아내는 만우절 거짓말인가 하고 반신반의 하더라고요. 그 뒤로 사귀자고 계속 밀어붙였어요.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심정으로요.

김미복 남편 박윤성

그때 저도 애인이랑 사이가 안 좋은 시기였어요. 그런데 지금의 남편이 자꾸 적극적으로 나오니까 마음이 넘어간 거죠. 게다가 생각도 바르고 주변에서도 평판이 좋으니까 마음이 저절로 가더라고요.

양민숙

고승범·양춘선 부부만 빼고는 서로들 잘 아는 상태에서 사귀게 되셨군요. 그렇다면 다음으로 사귀기 시작해 결혼에 이르기까지의 연애 이야기도 궁금해지네요. 같은 동네라서 주변의 시선 때문에 연애하는 것이 불편했을 수도 있고, 오히려 주변에서 모두 알고 있는 상황이라 편했을 것 같기도 하구요. 연애는 어떻게들 하셨나요?

4 .indd 21 2022-03-23 5:37:31



50대 부부 **김성진·문미열**

문영남 아내 양영자

연애할 당시에 나는 제주시에 살았고 아내는 육지에 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연애를 자주 하지는 못했어요. 보고 싶으면 편지를 쓰곤 했죠. 어쩌다 제주시에서 데이트를 할 때는 동문로 쪽에 있는 동양극장에 가기도 하고, 음악다방에도 가고, 통닭을 사먹기도 했어요. 한 번은 아내가 물질하러 가 있는 대천까지 가서 부산으로 데려와 구경을 시켜준 적도 있습니다.

양춘선 남편 고승범

저희 때는 주로 정구물 같은 자연이 연애장소였어요. 거기가 아늑하고 좋았죠.

고승범 아내 양춘선

요즘 같으면 카페 같은 데서 만날 텐데 그 시절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자연 속에서 만난 거죠. 지금 일성콘도가 있는 뒷쪽 길에서 정구물까지 걷곤 했어요.

박윤성 아내 김미복

저희는 차 아니면 집이었어요. 당시에 아내는 시내의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저는 학생이었거든요. 얼굴 볼 시간이 없으니까 주로 드라이브가 데이트코스였던 거지요. 제가 아내를 직장까지 데려다 주고 직장이 끝나면 금능까지 데려오곤 했어요. 또 아내 얼굴 한 번 보려고 장모님 집 담을 넘기도 했죠.

김미복 남편 박윤성

제가 직장을 다니니까 볼 시간이 없는 거에요. 시내에서 넘어오다 보면 거의 8시가 넘는데, 시골에서는 부모님들이 고된 일을 하시니까 일찍 주무시잖아요. 그래서 문으로 들어오기는 죄송하고, 보고는 싶고 하니까 이제 담을 넘는 거죠.

문미열 남편 김성진

저희는 두 사람 다 제주시에 직장이 있어서 거의 시내에서 데이트를 했어요. 당시 남편이 영화를 좋아해서 극장에 많이 다녔어요. 그 시절의 남편은 얼마나 깔끔하고 세련됐었는지 수염도 안 나는 남자인 줄 알았다니까요.

양민숙

차 안, 담 넘어 집, 정구물, 제주 시내, 부산까지 데이트코스가 정말 다양했었네요. 그런 연애 기간을 거쳐 드디어 결혼에 이르게 되는데 그 사연도 흥미진진할 것 같아요.

4 .indd 22 2022-03-23 5:37:32

양춘선 남편 고승범

저희는 친정 아버지가 시아버지 되는 분을 아주 괜찮게 생각해서 " 부모가 좋으면 자식은 볼 것도 없다"면서 결혼을 자꾸 부추겼어요. 그래서 저희는 연애도 많이 못해 보고 일찍 결혼했어요. 저희는 부모님들이 결사적으로 추진하니까 무슨 생각을 할 겨를도 없었어요. 그때 제 나이가 스물한 살이었죠.

문미열 남편 김성진

저는 처음엔 금능에서 살 거면 결혼을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시내에서 살 테니 걱정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는데 결혼 후에 제주시에서 살다가 조금 지나니까 고향에 가서 집 짓고 살자고 하더라고요.

김성진 아내 문미열

저희가 1월 4일에 결혼해서 5월 30일에 금능으로 왔거든요. 결혼 5개월 만에 약속을 번복하고 금능에 온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문제로 많이 다투었어요. 아내의 말이 사기결혼을 당했다는 겁니다.

문미열 남편 김성진

그렇게 됐죠(한숨).

다같이

웃음.

양영자 남편 문영남

저는 남편이 결혼하면 해녀 일 안 하게 해준다고 했었는데(웃음). 물론 해녀 일은 제가 좋아서 한 거지만요. 저희는 결혼식 날이 떠오르네요. 당시에 한림에 있는 진주예식장에서 결혼했는데 마침 그 날이 예비군 훈련일이라서 남편 친구들이 다들 군복을 입고 총을 든 채로 기념사진을 찍었어요. 또 저희는 신혼여행으로 제주도를 한바퀴 돌았는데 제 여동생들이 다 따라왔었어요. 지금 동생들이 신혼여행 사진을 보면 "우리가 거기를 왜 따라갔지?" 그러면서 한바탕 웃어요.

김미복 남편 박윤성

저희는 알고 지낸 시간이 오래다 보니까 연애는 짧고 굵게 했어요. 한 1년 정도 연애하다가 결혼했죠.

박윤성 아내 김미복

아내가 당시에 한림 읍내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반면에 저는 체격이 왜소하고 깡말랐었죠. 그래서 아내를 좋아하긴 했어도 이



40대 부부 **박윤성·김미복**

4 .indd 23 2022-03-23 5:37:32

렇게 결혼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여자는 정말 남자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진심과 정성을 다하고 극진히 대하니까 어느 순간에 넘어오더라고요.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속담처럼 열 번 찍을 생각으로 돌진했더니 결국 결혼에 성공했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더 잘했죠.

양민숙

박윤성·김미복 부부의 이야기는 정말 감동이네요. 금능에 그런 남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윤성씨 금능 남자 맞으세요?(웃음) 결혼 후에 더 잘 했다는 말이 나온 김에 결혼 이후의 이야기에 대해서도 들어볼까요? 결혼생활은 다들 어떠셨나요?

김미복 남편 박윤성

그럼 말 나온 김에 저희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남편은 정말 결혼 후에 더 잘 해주었어요. 특히 이벤트를 많이 해주는 이벤트왕이었죠. 다만 뒷처리를 해야 하는 게 고생스러웠지만요. 어느 날은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방바닥에 하트 모양으로 촛불을 켜 놓는 이벤트를 했더라고요. 처음에는 물론 감동했어요. 그런데 끝나고 보니 장판이 촛농으로 엉망이 되어서 안 한 것만 못하게 되었어요(웃음).

고승범 아내 양춘선

저는 결혼 후에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 목걸이나 반지 같은 것 하나 못해 준 것이 마음이 아픕니다. 당시에 많이 어려웠거든요. 그러니 부부 사이에 다툼도 잦았죠.

양춘선 남편 고승범

그러면 친정 아버지가 저희가 싸운 걸 다 알아요. 같은 동네니까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가 "춘선아, 20년만 참고 살면 다 옛날 생각하며 살아진다." 라고 말씀하시곤 했는데 그 말씀이 머리 속에서 잊혀지지 않아요. 20년만 참고 살라는 말이 이제는 이해가 되죠.

문미열 남편 김성진

저는 결혼 후에 기억에 남는 일이 20년 전의 일인데, 하루는 소포가 와서 뜯어보니까 18k 목걸이랑 메모가 있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감동했었어요.

김성진 아내 문미열

그 이후에도 출장 나갈 일이 있을 때마다 비싼 건 아니더라도 화장품 같은 선물을 사다주곤 했어요. 그런데 고맙다고 해주면 기분이 좋을 텐데, 왜 이 색깔을 사왔느냐는 둥 누가 골라주었냐는 둥 하면서 꼭 토를 다는 겁니다. 그런 말들을 듣고 있자면 기껏 돈 주고 선물을 사주면서 왜 욕을 먹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안 사주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안 사줘요.

문미열 남편 김성진

이제 안 그럴테니 사주세요.

다같이

웃음.

양영자 남편 문영남

저희는 사다 준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어요.

다같이

웃음.

양민숙

금능에서 만나서 금능에서 결혼하고 금능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야말로 찐 금능 부부의 생생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러고보면 저희 금능마을은 유독 한 동네에서 결혼한 가정이 많은데, 금능마을의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같은 마을 사람끼리의 결혼

4 .indd 24 2022-03-23 5:37:32



이 어떤 점이 좋은지, 또 단점은 무엇인지 궁금해지네요. 이에 대해 서로의 생각을 나누어보는 것으로 오늘 대담을 마칠까 합니다.

김미복 남편 박윤성

저 같은 경우엔 친정이 가까우니까 아이들을 마음 편하게 맡기고 직장일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또 단점이 되기도 하는데, 아이들을 너무 친정에만 맡기다보니 시댁에 자주 못 데려가서 그것을 서운해 하시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어요.

고승범 아내 양춘선

제 생각엔 장단점을 열거하면 수없이 많겠지만 비율로 따지면 거의 반반인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큰 장점 중의 하나는 양쪽 부모님들이 가깝게 있으니 찾아뵙기도 좋고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죠. 단점으로 말할 것 같으면 부부싸움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럴 때마다 아내가 가까운 처가로 가서 하소연을 하곤 해요. 그런 게 제 입장에서는 좋지 않죠.

문미열 남편 김성진

좋은 점은 시어머니와 함께 사니까 집안 일을 도와주시는 게 좋고요. 단점은 친정이 가까워서 제가 힘들게 일하는 것이 친정어머니 귀에 다 들어가는 거요. 속상해 하시니까 그게 싫어요.

김성진 아내 문미열

아내 말대로 부모님들과 가까운 것이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아요. 자주 얼굴을 뵈니 좋은 반면 다른 형제들과 비교하게 되어 서운한 감정을 갖게 되기도 해요. 부모님들이 제주시에 사는 자녀들이 가끔 오면 반가워하시면서 저희들은 그냥 일상적으로 대하시니까요.

고승범 아내 양춘선

맞는 말이에요. 부모님들이 저희들에겐 반가운 내색을 안 하시지만 도외지에 살고 있는 자녀들이 명절에 한 번 오면 저희들이 서운할 정도로 반가워하시죠. 하지만 곰곰히 생각해보면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저희들처럼 곁에 있는 자식들이 훨씬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울 것 같아요.

김성진 아내 문미열

그래서 부모님들도 한 마을에서 결혼시키시는 것에 적극적이셨던 거겠지요. 곁에 가까이 두고 싶어서요. 하지만 이제는 생활반경도 넓어지고 생활방식도 달라지니까 금능사람끼리 결혼하는 경우가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김미복 남편 박윤성

저희가 아는 한 아래 세대에서는 금능 사람끼리 결혼한 부부가 없어요. 그렇다면 저희 부부가 마지막 세대인데, 어쩐지 쓸쓸한 기분이 드네요.

양민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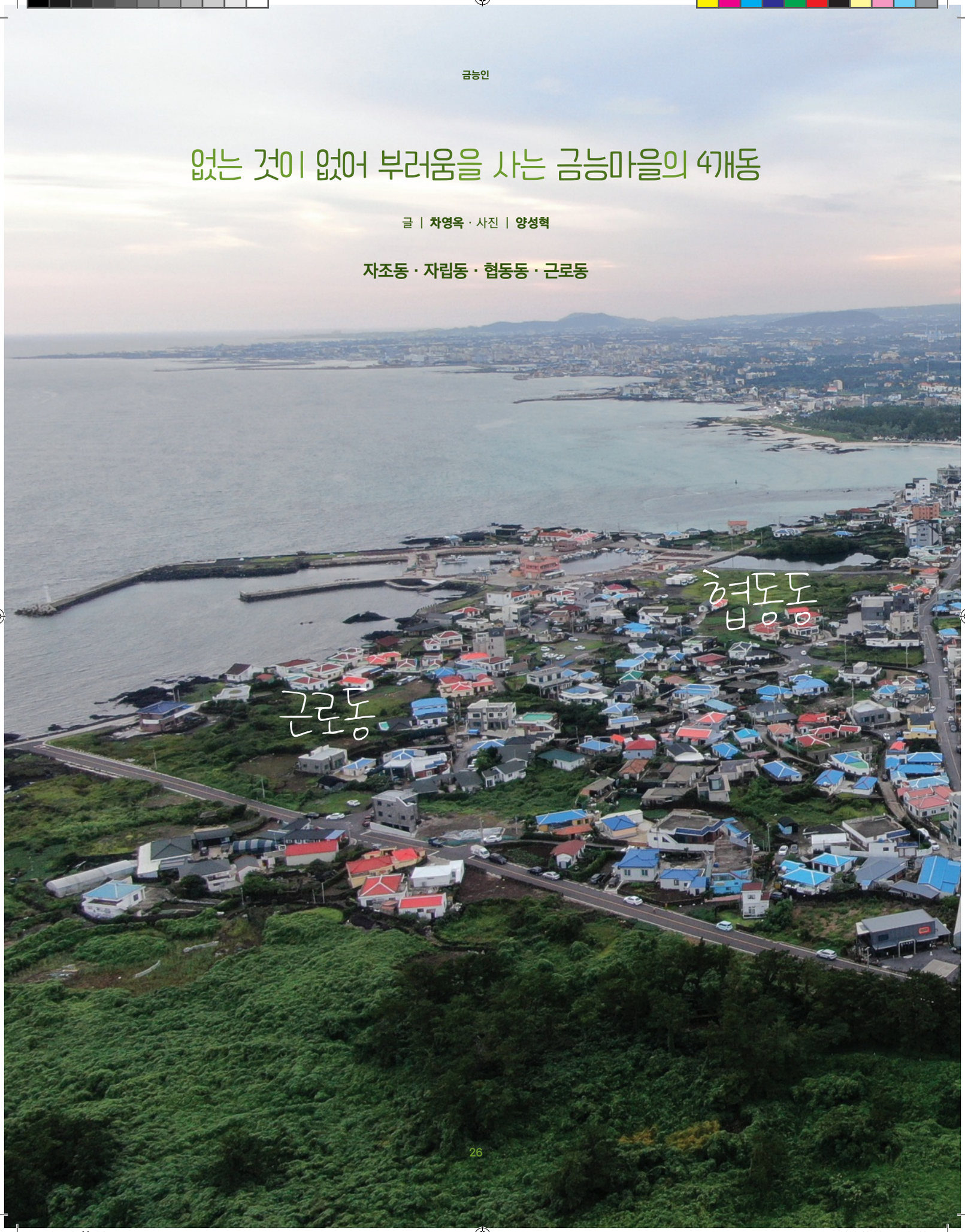
그렇습니다. 금능 사람은 금능 사람끼리 결혼한다고들 했던 금능 마을의 독특했던 문화도 다른 많은 문화들과 마찬가지로 시대가 바뀜에 따라 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더욱 특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 마을의 기본 단위가 가족이고, 가족의 기본 단위가 부부인데, 금능 사람끼리 맺어진 부부의 연으로 평생 가정과 마을을 지키며 살아오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이 자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ㅅ·IN

4 .indd 25 2022-03-23 5:37:32

없는 것이 없어 부러움을 사는 금능마을의 4개동

글 | **차영옥** · 사진 | **양성혁**

자조동 · 자립동 · 협동동 · 근로동



4 .indd 26 2022-03-23 5:37:33



4 .indd 27 2022-03-23 5:37:33

자조 자립

금능리의 동이 형성되는 과정을 알려고 하면 마을이 형성된 시기를 알아야 한다. 지금부터 450년에서 500년 전부터 마을이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원래 지명은 '배령리'라고 불렀다가 약 100년 전에 배령이라는 말이 제주어 버랭이(벌레)와 비슷하여 놀림받을 수 있으니 마을 중심에 있는 금동산을 한자로 바꿔서 금능(金陵)이라고 정했다고 한다. 다른 설도 있지만 정확하지 않아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중요한 것은 1970년대 금능리를 네 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동네 이름을 부여했다는 점이다. 당시 한창이던 새마을운동 정신에서 가져와 자조동, 자립동, 협동동, 근로동으로 명명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부르고 있다고 한다.

각 동에 동장이 따로 있어서, 마을체육대회도 네 개 동으로 나누어 경기를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체육대회 및 마을에서 진행하는 모든 행사가 멈춰져 있는 상태이다. 다른 마을들은 동 이름을 상동, 하동, 서동, 중동 등등 아주 간단하게 붙이는데 우리마을 금능리는 새마을정신을 동네 이름에 붙인 발상이 처음에는 신기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조금은 알 것 같다. 지금 생각해 보니 최근 몇 년 사이에 펼치고 있는 주민 주도 마을문화 계획수립, 행복한 마을 만들기 실천, 어촌종합개발계획사업들이 새마을운동 정신으로 비롯되어 애향심을 더 강하게 뿌리내리는 계기가 된 것 같다. 상대적으로 다른 마을에 비해 젊은 층이 많은 것도 공동체적 실천의지로 동요되어 문화적 자족기능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새마을운동 정신을 동 이름으로 사용한 마을인 만큼 금능리의 정신적 지주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다.





4 .indd 28 2022-03-23 5:37:35



없는 것이 없어 부러움을 사는 마을 금능리의 4개동, 자조동·자립동·협동동·근로동을 소개해 본다.

자조동은 4개동 중 제일 가구수가 많은 곳이다. 동을 구분할 때 마을 골목길을 기준으로 동서로 나눠서 동을 구분했다고 한다. 그렇지만 1970년대 후반 취락구조사업으로 생긴 구역 전체가구를 자조동으로 합치다 보니, 자립동의 두 배의 가구수가 되어버렸다. 너무 늦은 감은 있지만 자조동과 자립동의 동구분을 다시 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자조동의 가장 소중한 자원은 아직도 소박한 취락구조가 제주의 옛 마을 분위기를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반대로 새로운 건물들이 많이 생겨나는 곳이기도 하다.

모래밭에 형성된 취락구조이기 때문에 그 일대 모래고구마와 쪽파가 아주 유명하다. 흙밭 고구마 보다 깨끗하고 당도가 높아 주민들의 소득원 사업으로 각양받고 있다.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숙박업소와 음식점, 편의점, 빵집, 떡집, 소품가게 등 6차 산업이 작동하는 대표적인 곳이다. 어떻게 마을 한 곳에 이렇게 산업적 다양성이 풍성하게 자리 잡을 수 있을까? 앞으로 더 기대되는 자조동이다.



자립동은 작은 가구수 만큼 특색 있는 곳이 많다. 일단 가구수가 작기 때문에 단합이 아주 잘 된다. 해수욕장과 인접한 규모에 큰 원담이 옛 모습을 유지하여 아직도 무궁무진하게 발전가능성과 대를 이어 관리되고 있다.

그리고 돈물깍이라는 용천수가 있다. 용천수는 지하에서 물이 흐르는 층을 따라 이동하던 지하수가 암석이나 지층의 틈을 통해 지표면으로 솟아나오는 곳을 '용천'이라 하고 이 물을 '용천수'라고 한다. 금능리에도 크고 작은 용천수들이 분포되어 있지만 현재 보존되어 마을에서 새롭게 보수하여 관리되고 있는 유일한 용천수이기도 하다. 돈물깍은 언제부터 생겼는지 알기는 어렵지만 속칭 장수(사)코지(자립동) 주민들이 '돈물깍'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예부터 상수도가 없을 때 이 용천수를 이용하는 분들이 바다에 용천수를 가둬서 주민들이 우물처럼 사용한 곳이며 식수와 목욕 및 생활용수로 사용



4 .indd 29 2022-03-23 5:37:37

하였다고 한다. 지금은 여름철 피서객들이 목욕하는 장소로 활용하기도 한다. 자립동은 가구수 대비 다양한 숙박업소가 4개동 중 제일 많다. 음식점, 카페, 책방, 어린이집 등 다양한 문화와 먹거리, 볼거리를 소소하게 즐길 수 있는 장소가 적재적소에 숨어 있는 곳이다. 자립동 골목 골목마다 시화 문패가 벽화로 전시되어 있어 14코스 올레길을 다녀가는 올레꾼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준다. 바닷가의 그네 의자 쉼터 역시 모든 방문객들의 힐링의 장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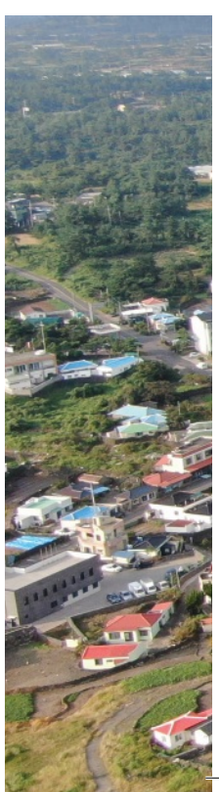
금능리의 4개동 중 비록 제일 작은 동이지만 아름다운 경치는 금능리에서 으뜸이며, 앞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진행이 되면 자립동은 볼거리가 더 많아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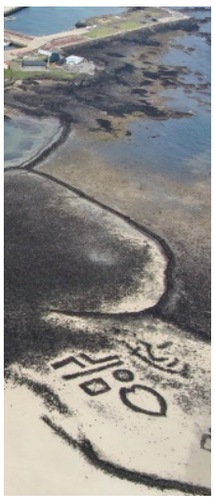
협동동은 금능꿈차롱 도서관이 있는 곳이다. 도서관을 중심으로 금능 서쪽포구로 쭉 이어진 골목을 걸으면 걸을수록 정감이 갈 수 밖에 없는 동이다. 예전에는 알동네 라 부르며 속칭 금능의 택사스 골목이었다고 한다. 그만큼 금능리에 난다 긴다 하시는 분들이 그 골목에서 노셨다고 한다. 그렇지만 지금은 올레길 14코스를 경유하는 동으로 시화벽화와 아름다운 바다 경치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올레꾼들이 많이 다녀가는 곳으로 탈바꿈하였다. 골목골목마다 옛날의 돌담들이 많이 남아있어서 방문객들에게 옛 시절을 그리워하게 하며, 바다와 접경한 주택들이 있어서 태풍이나 파도로 인해 아슬아슬한 광경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리고 해녀들의 쉼터인 금능어촌계 복지회관도 위치해 있다.

또 하나의 명소 이야기꺼리가 있는 '금능석물원', 제주의 돌인 현무암을 조각하여 만든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금능석물원'은 석공명예장 (故)장공익옹(1931.11.25~2018.9.1)의 일관된 제주의 삶에 대한 풍자와 해학을 엿볼 수 있는 만 여평의 부지에 약 3,500점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협동동은 빈집이 없어서 인구밀집이 집중되어 있는 곳으로 금능리에서 체육행사시에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단합이 아주 잘되는 동이며,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4 .indd 30 2022-03-23 5:37:38

근로 협동



근로동은 1996년 7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념물 제23-19호로 지정되어 있는 배령연대(盃令煙臺)가 있는 곳이다. 속칭 근로동 골목을 "연두(연대)가름"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를 이제는 알 것 같다. 아마도 배령연대가 있어서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연대는 횃불과 연기를 이용하여 정치·군사적으로 급한 소식을 전하던 통신수단을 말한다. 봉수대와는 기능면에서 차이가 없으나 연대는 주로 구릉이나 해변지역에 설치되었고 봉수대는 산 정상에 설치하여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횃불을 피워 신호를 보냈다고 한다.

배령 연대는 연대동산에 자리하고 있으며, 훼손이 심해 현재는 높이 1.9m만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올레길 14코스를 경유하고 있어서 많은 역사학자와 올레꾼들이 방문하는 곳이기도 하다. 근로동은 예전에는 인구수가 제일 많은 동이었으며, 젊은 분들도 많이 거주하는 동이었는데 지금은 젊은 분들보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다 보니 조용하고 안정적인 전원생활을 원하시는 분들이 살기에는 아주 좋은 곳이다. 다른 동에 비해 유명한 장소는 없지만 인정 많고 아직은 농촌의 인심이 살아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을의 무사안녕을 비는 곳인 능향원이 자리하고 있는 곳이다.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없으나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전부터 시작되었으며 명월진 시대부터라고 한다. 복사되는 분이 가마를 타고 제주도를 순방할 때 이 터는 한림읍 한경면 마을에서 등장(等狀)할 일이 있으면 리 대표들이 이곳에서 리민들의 애원을 이야기 한 곳으로 예전에는 등장터라 불렸다고 한다. 이곳이 현재 능향원으로 1년에 한번 정월대보름에 제관들을 뽑아 마을의 무사안녕을 비는 제를 지내는 곳이다. 신성한 장소 또한 근로동에 위치하고 있으니 금능리에서 근로동이 신의 보호를 제일 많이 받고 있는 특별한 동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人·IN



4 .indd 31 2022-03-23 5:37:40

길 위에서

집 앞을 나섰을 때 제일 먼저 만나는 곳, 울타리 너머 세상과 발맞추며 나아가는 길에 서면 뭔가 다른 사람들을 읽는 것 같다. 이 길에서 무슨 생각을 했고, 무슨 말을 했을까? 혹은 누구와 이 길을 다녀갔을까? 그때 날씨는 어땠을까? 기분은 좋았을까? 이런 질문이 돌고 돌아 나를 향할 때쯤이면 나는 또 다른 길로 들어서고 있을 때다.

'길'이라는 단어에 담겨진 다중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길은 누구에게든 설렘이고, 희망이고, 새로움이다. 동시에 두려움이며 지루함일 수도 있다. 대상에 따른 기준이 아닌, 시간에 따른 기준일 것이다. 누구에게나 '길'은 관계와 연대가 주는 복합적 작용을 동반할 테니 말이다.



안녕, 배령연대로

글 · 사진 | **양민숙**

4 .indd 32 2022-03-23 5:37:40

금능리에 새로운 길이 생겼다. 지번을 행정주소로 사용하던 예전에는 새로운 길이 생겼다고 해도 이용의 편리함 혹은 지가의 변화 정도로 많은 접근을 하였다면, 지금은 다르다. 지금은 도로명이 행정주소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새로운 길이 생겼다는 것은 그 길을 따라 거주하는 주민들의 행정주소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배령연대로' 라고요?

'배령연대로'는 금능리 도로 중 가장 최근 2019년에 개설되었다. 금능리의 중심인 '금능길'과 올레 14코스의 일부이기도 한 금능리 어장진입로를 잇는 2차선의 도로다. 마을 안을 잇는 길 치고는 큰 길에 해당된다. 이 도로는 능향원 입구로부터 시작된다. 도로의 초입에 서면 일직선으로 뻗은 길 끝으로 비양도가 보인다. 도로가 일직선이긴 하지만 높이가 살짝 다른 이유로 천천히 걸어갈수록 비양도가 점점 더 멀어지는 착시 현상을 느낄 수도 있다. 이 도로에 인접한 가구들은 원래 금능1길에 포함이 되었었다. 2022년 3월에'배령연대로'라는 이름으로 바뀌며 이 길을 따라 배령연대로1, 배령연대로2 로 정정되었다.

'배령연대로'라는 이름은 이 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배령연대'를 찾아가는 두 개의 길을 만나기 때문이다. 마을의 주요 유적지인 '능향원'과 '배령연대'가 동시에 따라 들어오는 길이라 할 수 있다. 이 길에서는 소박한 식당과 소품가게도 만날 수 있다. 능향원, 배령연대와 더불어 금능리의 정과 향을 느낄 수 있는 식당과 소품가게도 이 지면을 통해 소개해 본다.

2 | 비양도가 보이는 길



1 | 배령연대로 초입



4 .indd 33 2022-03-23 5:37:41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능향원

음력 정월대보름날이면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 마을제를 지내는 곳이다. 1986년 금능리에 흩어진 당과 포제단을 모아 만들어졌는데, 유교식 '포제'와, 전통 민간신앙 '본향당', 불교식 조형물들이 어색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최근 들어 조형물이나 위치, 형태 등의 해석이 분분하지만 마을주민들이 모두 모여 정성껏 포제를 치루는 모습은 성스럽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정성을 드리는 기간에는 마을 안에서 장례를 치루는 것도 금기시 되어 있었다. 그만큼 마을공동체의 성격이 짙게 배어 있는데, 모두의 염원과 화합의 정신이 깃들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돔베고기와 순대, 고향역

배령연대로 초입에서 만나는 손글씨 간판은 상호명 만큼이나 정겹다. '역'이 없는 제주에 '고향역'이라니, 상상 속 열차를 타고 금방이라도 고향으로 달려가고 싶어진다. 이곳은 돼지국밥과 고기국수가 주메뉴로 마을 주민들은 물론, 오고가는 나그네들의 발길까지 붙잡는다. 인공조미료를 사용하지 않아 맛이 담백하고 재료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다. 따끈한 돔베고기와 순대 한 접시를 시켜놓고 막걸리 한 사발 들이키면, 세상 근심이 다 사라지는 것 같다. 손재주 좋은 바깥주인이 직접 만든 조형물들을 건물 안팎에서 구경할 수 있는 재미는 덤이다.

베지근한 보말칼국수, 맹순이네

금능리 바다에서 직접 잡은 보말을 주 재료로 하여 만든 '보말죽', '보말칼국수', '보말수제비'를 만날 수 있는 식당이다. 주인의 제주식 이름을 간판으로 사용하여 운영하는 '멩순이네'는 마을 주민들에게도 인기가 좋다. 진한 육수의 보말칼국수를 먹어본 사람은 다 고개를 끄덕인다. 보말칼국수를 하는 식당은 제주 여기저기 흔하지만, 이렇게 정성이 담긴 칼국수를 만나기란 그리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안 찾은 손님은 있어도 한번만 찾은 손님은 없다는 말은 바로 이 식당을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가끔 운 좋은 날은 메뉴판에 없는 음식도 먹을 수 있다. 그 날 그 날 신선한 재료가 주는 특별메뉴, 특별 선물인 셈이다.

3 | 능향원 입구



4 | 고향역



5 | 맹순이네



4 .indd 34 2022-03-23 5:37:42

수영장 작가의 공방, VACANCY

VACANCY(베이컨시)는 '빈 방', '빈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비어 있는 것은 결국 새롭게 채울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꽉 차 있지 않은, 그래서 무엇이든 채울 수 있는 VACANCY는 금능리에서 나고 자란 20대 대표가 '다양성'과 그것을 열 수 있는 '열쇠'를 키워드로 운영하는 공방 겸 소품가게다. 여기에서는 식상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그릇에서부터 열쇠고리, 열쇠모양의 북마크 등을 만날 수 있다. '수영장' 작가란 별칭을 얻을 정도로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은 수영장 모양의 다용도 그릇이다. 대표가 직접 수작업으로 만들어서 똑같은 모양이 하나도 없다. 금능리 소라딱지를 이용한 소품들도 관광객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배령연대로의 소식도 전해들을 수 있는 배령연대

이름을 차용해서 길의 이름을 만들었으니, 이 길의 가장 주인공인 셈이다. 배령연대로에서 배령연대를 가는 길은 두 곳이다. 한 곳은 맹순이네 맞은편 좁은 손바닥선인장길을 거쳐 구불구불 들어가야 하고, 한 곳은 VACANCY 옆 골목으로 들어가면 된다. 이곳은 명월진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서 동쪽으로 마두연대, 서쪽으로 대포연대와 교신하였다고 문헌에 나와 있다. 1996년에 제주도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관리되고 있다.

다시 길 위에서

누군가 말했다. 길의 완성은 결국 사람들이라고. 나 역시 동의한다.

배령연대로가 푸른 마늘이 올라오는 텃밭, 낡은 창고, 구수한 냄새가 풍기는 식당, 비양도가 보이는 쭉 뻗은 도로 등 심쿵을 부르는 길이지만, 이보다 더 빛나는 풍경은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텃밭을 가꾸는 부지런한 명순 언니, 하루를 일찍 시작하는 석주씨와 태준이의 산책, 마을 소식이 궁금해 동네삼촌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시는 명랑이 삼촌, 집과 밖을 가장 많이 왕래하는 차영옥시인 등 이 길에서는 모두가 풍경이고 모두가 길이다. 이 길에서는 모두가 희망이고 모두가 설렘이다. ㅅ·IN

7 | 배령연대



6 | 베이컨시



4 .indd 35 2022-03-23 5:37:42

금능 원담에는 멜이 살고 있습니다

글 | **이윤영** · 사진 | **양성혁**

금능인 〈원담밥상〉은 오래전부터 금능 사람들이 먹었던 음식이나 식재료를 하나씩 조명해 보는 코너로 마련이 되었다.

두 번째 시간으로 금능리 으뜸 식재료 '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멜'은 '멸치'의 제주 방언으로 불린다.



멜은 바다 해수면 가까이에서 서식하는 물고기이다. 바닷물이 유난히 맑은 제주에서는 바다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멜 들이 무리지어 헤엄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멸치'라는 이름은 '물 밖으로 나오면 금방 죽어버린다'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렇듯 성질 급한 생선은 신선도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

예전에는 금능 원담 안에 "멜 들었쪄" 소리에 주무시다가도 눈이 번쩍 커가 번쩍해서 금능선전터로 달려 나가셨던 시아버님, 원담 안에 물이 밀려왔다가 썰물이 되면서 미처 빠져 나가지 못한 멜들을 족바지를 이용해서 건졌다고 했다. 멜 철에 거룻배들이 바닷가로 멜을 몰아가면 마을 사람들이 모두 바닷가로 나와 횃불을 밝히고 일제히 그물을 잡아당기면서 그물을 후리는 작업을 하였다고 시어머니께 전해 들었다.

몇해 전 말로만 들어왔던 '멜이 가득한 원담'을 금능 마을에 살면서 생애 처음 겪어보는 진귀한 경험을 했다. 새벽에 원담에 나갔던 신랑의 긴급 호출 전화를 받고 급한 마음에 작는 소쿠리와 물 빠짐이 좋은 양배추 망사가 있어서 챙겨갔다. 먹는 것보다 잡는 손 맛이 더 짜릿하다는 건 잡아 본 사람만이 안다. 요리조리 떼지어 다니는 멜을 잡는 동안 너무 신바람이 났다.

멜을 소쿠리로 담기만 하면 될 정도로 원담 안은 은빛 물결이었다. 이날 동네 어르신들도 원담에 '멜 들었다'는 소문을 듣고 멜을 뜨러 나오셨다. 예전부터 금능 원담 안에 멜이 많이 건져지는 날은 동네 어르신들이 소쿠리를 들고 나와 멜을 가져다가 멜국을 끓여먹었다고 한다. 살과 뼈 전부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칼슘 섭취가 용이한 영양식품이며 각종 무기질 및 단백질도 많아 성장기 어린이 뼈 발육에 도움이 된다하니 더 더욱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멜 잡는 시기는 6~7월이 살이 통통하게 올라 있고, 기름도 져 가장 맛있다. 다섯, 여섯 물에 멜이 가장 잘 든다고 금능원담을 잘 보존하고, 원담에서 멜을 잡아오신 금능원담지킴이 이방익 할아버지가 귀띔해주셨다.

제주음식은 양념이 거의 들어가지 않고 조리시간이 짧다는 특징이 있다. 재료의 맛을 순수하게 살려 조리한 제주음식은 단연코 웰빙음식의 선두주자라고 할 만하다. 얼마나 신선하면 국으로 끓여도 시원한 맛이 일품이고, 튀김으로 해먹으면 입안에서 바삭바삭 담백한 맛이 그만이다. 그 특별한 맛의 비밀은 재료의 신선도이다. 제철에 금능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멜로 그동안 먹어보지 못한 특별한 맛을 낸다는데 멜을 이용한 다양한 요리와 그 맛을 시어머님이 알려주는 조리법에 지금 입맛에 맞춰 업그레이드한 멜 요리비밀을 소개해 본다.



"멜"이 뭐냐고요?
생멸치,
그것도 오동통하게 살이 오른
큰 멸치로
멜을 이용한 각종 요리들은
제주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 중의 하나입니다.
칼슘의 왕 하면 떠오르는 식품은?
바로 멸치지요.

4 .indd 37 2022-03-23 5:37:43

금능 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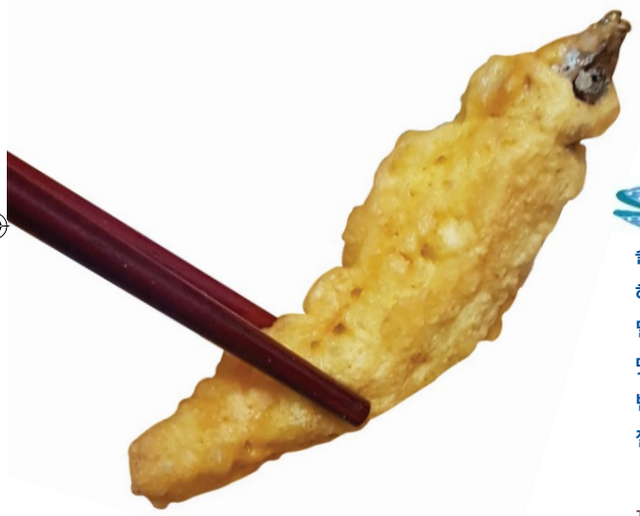
멜 국



생멸치는 소금물에 씻어 놓고 배추도 씻어 놓는다. 끓는 물에 멸치를 넣고, 한소끔 끓으면 배추를 손으로 잘라 넣는다. 마늘 다진 것을 넣고 간은 국 간장으로 하며 기호에 따라 후춧가루를 넣어 먹는다. '멜국'은 생멸치와 배추로 끓이는 국으로 신선한 멜이 아니면 시도할 수 없는 국인데, 이 멜 국이야말로 제주 멜의 가치가 드러나는 멜 요리의 백미라 할 수 있겠다.

재료 | **생멜, 얼갈이배추, 물, 국 간장 1.5 큰술, 다진마늘 약간**

❶ 생멸치는 손가락으로 눌러서 머리와 내장을 빼고 소금물로 씻어놓는다.
❷ 물을 끓여서 손질한 생멸치를 넣고 끓인다.
❸ 멸치국물이 끓기 시작하면 배추를 손으로 뜯어 넣고 다진마늘과 국간장으로 간한다.



멜 튀김

술안주에 간식으로도 최고인 멜 튀김은 튀김요리 특유의 느끼함을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바삭바삭하고 담백하다. 양념간장에 찍어 먹으면 더 맛이 좋다.
밀가루나 튀김가루에 한 번 묻힌 다음 반죽을 입혀 기름에 튀겨서 먹는 요리로 어른들은 뼈째로 씹는 맛을 느끼면서 먹어도 좋지만 아이들도 부담 없이 잘 먹게 하려면 뼈를 발라내서 튀기는 것이 좋다.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번만 먹었다는 사람은 없다. 정말 어디서도 먹어보지 못한 맛을 느낄 수 있다.

재료 | **생멜, 튀김가루, 카레가루, 식용유, 달걀**

❶ 팬을 달군 후 식용유를 넣고 끓인다.
❷ 튀김가루와 카레가루, 달걀을 섞어 튀김옷을 만든다.
❸ 멜에 튀김옷을 입혀 기름에 튀겨낸다.
❹ 바삭한 식감을 위해 식힌 튀김을 다시 한 번 튀겨낸다.

멜 조림

뼈까지 씹어 먹을 수 있도록 푹 조려진 멜 조림은 밥 도둑이자 칼슘의 보고인 건강식이다.



재료 | **멜, 대파, 고추, 간장, 다진마늘, 고춧가루, 설탕, 후추, 참기름, 맛술, 식초, 통깨 조금**

❶ 멜을 냄비에 담고 양념장을 끼얹습니다.
❷ 양념장은 강하지 않게 간장. 고춧가루, 다진 마늘, 맛술, 설탕을 넣고 만든다.
❸ 이렇게 만든 양념장을 위에 끼얹고 물을 살짝 부어 타지 않게 하고 대파와 고추를 넣고 약한 불에 졸인다.

4 .indd 38 2022-03-23 5:37:44



작고 보잘 것 없어 보이는 멜이 제주에서는 훌륭한 요리재료로 특별한 맛을 전해주는 별미로 꼽힌다. 제주의 음식문화에서 멜이 차지하는 범위는 생각보다 매우 폭이 넓다.

오동통한 멜을 이용한 다양한 요리들, 제주의 싱싱한 바다 맛이 살아있는 별미 얼마나 신선하면 국으로 끓여도 시원한 맛이 일품이고, 젓갈도 담고, 갖은 양념을 넣어 조려도 먹고, 튀김으로 해먹으면 입안에서 바삭바삭 담백한 맛이 그만이다.

조리하지 않고도 팔딱 팔딱 살아있는 멜 회는 빙어 먹듯이 그냥 초고추장 찍어서 바로 머리에서부터 꼬리까지 모두 먹을 수도 있다 굵은 소금 뿌려 석쇠에 구워먹으면 고소한 맛은 덤이다. 멜을 말려서 먹어도 되고 말린 멜을 조미료처럼 사용도 한다.

멜이 가장 맛있고 싱싱한 봄 철 제주를 여행 중이라면 멜 국이나 멜 조림, 멜 튀김, 멜 젓 중 하나라도 먹어보라고 추천한다.

몇 년 전 남편이랑 멜을 소쿠리로 퍼 담아 나오면서 주변 이웃들에게 멜을 나눠 먹었던 기억이 떠오른다. 지금은 수온이 따듯해지면서 원담에서 멜이 점점 보기가 힘들어져 가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 냉동실에 보관해 둔 싱싱한 멜을 꺼내 아이들이 좋아하는 치즈와 멜 살만 발라내어 멜 치즈 볼 퓨전 요리도 개발해 봐야겠다. 멜을 이용한 다양한 요리들을 개발하여 금능 밥상이 풍성해지기를 바래본다. 人·IN

요리레시피 제공 | **김옥윤**

멜 젓

다른 지방에서는 멸치로 액젓을 만드는데, 제주도에서는 멸치로 젓을 담근 후 장기간 숙성시켜도 멸치 살이 흐트러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어 고소한 맛을 낸다. 갖은 양념을 한 후 반찬이나 돼지고기에 곁들여 먹으면 좋다. 멜젓은 제주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자리젓에 버금가는 애용 젓갈류이다. 돼지 고기 집에서 청향고추 송송 썰어 넣고 고기 굽는 판위에 올려 바글바글 끓이면서 구워진 고기를 찍어 먹는 것이 바로 멜 젓이다. 돼지고기의 느끼한 맛을 없애주고 특유의 향미로 입맛을 돋우는 등 돼지고기와 환상의 궁합을 이룬다.

재료 | **생멜, 굵은소금**

❶ 멜 10되에 소금 6되의 비율로 멜과 소금을 한 켜씩 번갈아 담는다.

❷ 맨 위에 소금을 하얗게 얹어 멸치가 보이지 않도록 한다.

❸ 공기와 잘 접촉되지 못하게 밀봉한다.



4 .indd 39 2022-03-23 5:37:44

맛차롱

FOOD CHARONG

맛차롱
Food Charong

금능맛차롱협동조합의 프로젝트는 ing

글 · 사진 | **한명희**



4 .indd 40 2022-03-23 5:37:45

위기를 기회로 금능리 주민의 숨은 능력

2021년 금능리에 거주하고 있는 57세대의 주민들이 모여 금능맛차롱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되었다. 설립되기 몇 년 전부터 몇 명의 마을주민들은 모일 때마다 조합하나 만들면 어떨까? 생각하고 스스럼없이 의논을 하기도 했다. 금능에 있는 인적자원과 해수욕장을 비롯한 바다 어장 그리고 농수산물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판매하면 주민들의 수익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금능리 마을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준비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고 정상에 오를 수 있다

그렇게 꾸준히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갑자가 코로나가 일어나고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해녀들의 삶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일본으로 전량 수출이 되는 금능리 뿔소라는 제주도민이나 육지에 있는 사람에게 맛볼 기회조차 없었던 귀한 뿔소라가 판로가 없어진 것이다. 그저 열심히 물질만 하면 됐던 해녀도 이제는 물질해 놓아도 수협에서 수매를 하지 않기에 근심은 짙어지고 직접 판매까지 하게 되었는데 평생 물질만 하던 이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코로나로 전국적으로 자영업자들은 큰 타격을 입고 제주도 관광산업까지 타역을 입게 되었는데 그 여파가 금능리 마을 깊숙이 자리 잡은 것이다. 어쩌면 한숨과 푸념으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다. 코로나만 원망하고 원망하며 근심걱정으로 하루하루 힘들게 지냈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금능리 주민은 그렇지 않았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금능리 주민에게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금능리 마을의 숨은 능력일 것이다. 작은 생각들이 모여 큰 생각으로 마을주민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주신 당시 금능리 이장(김성수) 당시 부녀회장(홍준희)을 필두로 해녀 살리기 프로젝트를 꾸몄다.



상 | 뿔소라 채취를 마치고 수확물을 정리중인 금능 해녀들
하 | 코로나로 판로가 막히자 금능 해녀들의 한숨이 깊어진다

해녀 살리기 프로젝트부터 시작된 맛차롱협동조합

해녀 살리기 프로젝트는 처음에는 거창하지는 않았다. 뿔소라 수확 시기가 되었지만 뿔소라 수매가 안됐기에 뿔소라를 팔아보자는 생각에서 시작하였다. 첫 시작은 제주 어촌특화지원센터에 지원을 받아 드라이브 스루를 시작하였다. 금능해수욕장에서 드라이브 스루를 500

맛차롱
Food Charong

4 .indd 41 2022-03-23 5:37:46





상 | 드라이브스루를 통해 뿔소라를 판매하고 있다
하 | 금능맛차롱협동조합에서 만든 자숙소라

개 한정으로 판매를 하였는데 한 시간도 안돼서 완판이 되었다.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좀더 나아가 보기로 했다. 뿔소라를 생물로 팔고 자숙소라를 만들어 팔았다. 농사일과 해녀일 밖에 하지 않았던 이들에게는 그 한계에 부딪혔고 좀 더 확장해서 제주도가 아니라 육지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진 못한 맛을 선보이고 싶었다.

뜻있는 금능리 주민들은 해녀 살리기 프로젝트의 순수하게 받아들여줬고 좋은 취지라는 생각에 동감하며 동참 해줬다. 이 또한 이주민과 선주민들 간의 소통과 협력이 밑바탕에 깔려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뿔소라를 삼고 나르고 다듬고 포장하는 일, 홍보를 위한 사진촬영 홍보 컨셉을 도와주는 일, SNS와 블로그에 홍보해 주는 일, 수협과 제주어촌특화지원센터에 도움 받는 일, 각자 자신들이 잘할 수 있는 일은 알아서 척척 일처리를 해나갔다. 그렇게 금능리 주민 자체적으로 진행되었던 해녀 살리기 프로젝트는 성공적이었다. 될까, 과연 될까, 반신반의하며 일을 도와주셨던 분들도 어느 정도의 희망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서서히 맛차롱협동조합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회의가 열렸다. 2021년 2월 16일부터 2월26일까지 금능리에 주소를 두고 5년 이상 실거주 중인 세대원을 자격을 두고 금능리협동조합 설립동의자 모집공고를 하여 2021년 3월 일 맛차롱협동조합 창립을 하였다.

초대 조합장(문영남)을 필두로 금능 지역의 다양한 농수산물과 해녀들이 직접 채취한 뿔소라와 미역, 톳, 성게알 등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전국으로 판매하고 제주 금능리에서 수확한 해산물들을 육지로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맛차롱협동조합의 프로젝트는 ing

–

맛차롱협동조합의 첫 번째 프로젝트로 금능맛차롱 상점을 열었

맛차롱

4 .indd 42 2022-03-23 5:37:48

다. 금능리의 자랑 아름다운 금능해수욕장을 찾아주시는 분들에게 해녀들이 직접 물질하여 채취한 뿔소라로 뿔소라 꼬치의 맛을 선보이고 우미(우무가사리)로 금능원담우미라는 이름으로 음료를 만들고 금능리 농부들이 직접 재배하여 생산한 미니 단호박으로 미니 단호박 에그슬러를 만들었다. 농부들은 농사에만, 해녀들은 물질에만 평생 업으로 살아온 이들에게는 조금 낯선 경험이었다. 하지만 금능원담축제와 여러 행사들을 진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장사에는 미숙하지만 새로운 경험이라 생각하며 단합된 모습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첫경험이란 그렇듯 대단히 성공적인 상점 판매수익을 얻지는 못했지만 값진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했다는 것에 만족을 해야 했다. 내년 그리고 그 후년에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발자국 더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성공적인 마을사업의 미래

앞으로의 계획은 맛차롱협동조합의 모태가 되어준 뿔소라를 좀 더 알리고 금능리 바다에서 나오는 해산물을 상품화하여 소득 창출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 또한 금능 농부들이 직접 농사를 지은 농산물을 꾸러미로 만들어 판매할 예정이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다이렉트로 연결 시켜주는 네트워크를 조성하여 생산자는 좀 더 높은 이익을, 소비자는 좀 더 신선하고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더 나아가 가공시설을 만들어 1차 산업에서 6차 산업으로의 확장을 목표로 삼고 있다.

협동조합 사무실을 마을 리사무소 옆 창고를 리모델링하여 체계적인 마을 사업으로 만들어서 제주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성공적인 마을사업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ㅅ·IN

상 | 값진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협동조합 사람들
하 | 성공적인 마을사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협동조합 사람들





4 .indd 43 2022-03-23 5:37:49

2017년 『금능인』 창간호에서는 마을의 오래된 외부 공간을 조명했다면, 이번호에서는 사라진 내부 공간을 조명해 본다.
시간은 흘러 지금은 사라졌지만 기억으로는 존재하는 공간, 그 안에서 꾸었던 꿈들, 다시 소환해 본다.

사라진 공간들, 꿈틀거리는 기억들

글 · 사진 | **양민숙**



일러스트 © **안민승**

4 .indd 44 2022-03-23 5:37:49



모든 존재는 시공간의 그물에 갇혀 살아가고 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시간과 공간이 씨줄과 날줄로 겹치는 지점에서 매 순간 삶이 발생하고 또한 연속된다.
이렇듯 시간의 지속에 의해 우리는 삶의 나이를 먹어간다.
한편 공간은 '무엇이 존재할 수 있거나 어떤 일이 일어나는 자리'이다.
그런데 허망하게도 과거에 내가(우리가) 존재했던 공간은 세월과 함께 덧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었다.
- 윤대녕 『사라진 공간들, 되살아나는 꿈들』 중에서

만화방.

1970년대 신체놀이에 열중하던 아이들에게 **만화방**은 공간 안에서 새로운 매체를 만날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이었다. 금능리에도 1970년대 후반에 **만화방**이 생겼다. 아이들은 수시로 이곳을 노렸고, 들락거렸다. **만화방**을 이용하는 연령이 꼭 아이들한테만 맞춰진 것은 아니었다. 만화책을 빌리러 가면 **만화방**에 동네 오빠들, 삼촌들이 항상 만석을 이루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어떤 오기가 생겼던 것 같다. 만화도 좋아했지만, **만화방** 안에서 킥킥대며 만화를 읽고 싶은 욕구를 금능 **만화방**은 충족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부끄러움이 많아 남자들이 가득 찬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매번 만화책을 빌려와 집에서만 읽어야 했다.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여학생들에게는 없다는 현실에 분개했던 기억이 난다. 엄마 몰래 돼지저금통을 털어 빌린 만화책을 읽다가 들킨 어느 날, 엄마는 화들짝 놀라며 딸이 빌려온 만화책을 전부 찢어버렸다.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 그 당시만 해도 만화책은 저급한 불량서적 대접을 받을 때니, 딸이 만화책을 읽는 다는 것이 엄마는 용납할 수 있는 선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그러기에 만화책 읽는 것은 늘 음지에서만 가능했다. 찢은 만화책 값을 다 변상해 주었는지 기억은 없다. 다만 엄마의 반대가 커질수록, 몰래 읽는 수법도 나날이 발전했다는 기억만 있을 뿐. 그 이후에도 오래도록 만화책에 코를 박고 살았다. 여학생들에게 제한된 것이 너무도 많았던 그 때, '캔디' 신드롬은 대단했다. 순정만화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을 통해 대리만족을 얻었다. 때론 신데렐라처럼 신분상승을 기대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현실과 만화의 경계는 어른들이 염려했던 것처럼 간혹 뜻하지 않은 곳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다. 만화주인공처럼 예쁘고 잘생긴 사람을 보면 현실에서도 주인공으로 여겨져, 그렇지 못한 스스로의 모습에 자괴감이 들기도 하였다. 그러다 강한 자존심과 의지, 직업적인 능력을 갖춘 젊은 여성 캐릭터가 한국 대중예술사에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생기기 시작한 때이다. 대중매체를 통해, 만화를 통해 그려지는 여성주인공의 변화는 설렘 그 자체였다. 그러나 **만화방**은 1980년대 시대의 흐름을 타면서 pc방과 비디오방에 밀려났다. 금능 **만화방**도 비디오방과 같이 영업을 하다가, 어느 날 부터는 만화를 빼고 비디오테이프만 취급하는 공간으로 바뀌어 갔다. 내 신데렐라 병이 조금씩 나을 때였다.

4 .indd 45 2022-03-23 5:37:51

비디오방.

영상이 주는 힘은 대단했다.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비디오대여점이 한창 주가를 올렸다. 하지만 난 쉽게 출입할 수가 없었다. 웬일인지 이번에는 비디오테이프를 보는 것이 건전하지 못한 것이라는 혼자만의 해석 때문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TV에서 상영해주던 '주말의 명화', '토요명화'는 선정적인 장면이 편집된 영화였기에, 엄마와 같이 영화를 보면서도 부담되지 않았었다. 영화관에서 첫 영화를 본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남자친구와 함께였다. 그때 입맞춤 장면이 느닷없이 등장해 곤혹스러웠던 기억이 있다. 그 이후로 텔레비전이 아닌 곳에서 상영되는 영화는 무조건 혼자서만 보아야 한다는 고집이 생긴 것 같다. **비디오방**에 간다는 것이 뭔가 잘못을 들킨 것처럼 남의 눈치를 보며 쭈뼛거리게 했다. 하지만 이런 나의 어색함과는 달리 **비디오방**은 늘 성황을 이루었다. 만화방이었을 때 주류를 이루었던 분들이 **비디오방**으로 바뀌었어도 여전히 그 공간에 머물렀다. 공간서비스 없이 책이나, 비디오테이프를 빌려만 주었더라면 어떠했을까? 아마도 공간에 대한 기억이 아스라이 자리 잡지는 못했으리라. 신데렐라 병은 나았어도 쉽게 다가설 수 없었던 공간에 대한 로망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버스정류장에서 집까지 걸어가는 길, **비디오방**은 딱 중간쯤에 있어서 언제나 하교길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어렸을 때부터 망상에 사로잡히곤 했던 나에게, 영상이 주는 영향은 단순 호기심을 넘어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주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고백하건데, 부족하게나마 글을 쓰는 일을 하게 된 중심사건이기도 하다. 집집마다 비디오테이프플레이가 있었고, 심지어 나는 혼수품으로 장만하기도 했다. 결혼식 영상, 아이들 성장 영상을 제작하여 두고두고 남기리란 열풍은 꽤 오래갔다. 하지만 그 매체는 비디오에서 DVD로 바뀌며 비디오대여점은 2000년대 들어 쇠락하기 시작하였다. 금능리 비디오대여점도 시대의 흐름을 탔다. 이는 케이블TV의 등장과도 맞물린다. 집집마다 TV를 통해 쉽게 영화를 접할 수 있는 시대로 들어서며 공유의 경험에서 소비의 경험으로 바뀌어갔다.

탁구장.

1980년대 금능리에도 **탁구장**이 생겼다. 그 당시 탁구는 국민스포츠였다. 학교마다 탁구부가 있었고, 학교대항 경기도 종종 있었다. 그렇다 치더라도 작은 시골마을에 **탁구장**이 생긴 것은 획기적인 일이었다. **탁구장**은 '만화방'만큼이나 성황을 이루었다. **탁구장** 앞을 지날 때면 '딱', '따닥' 경쾌한 탁구공 소리가 괜히 발걸음을 신나게 하였다. **탁구장**은 가장 친했던 친구네 집에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와 나는 초등학생 시절 둘 다 탁구부였다. 아무리 연습하고 노력해도 그 친구를 따라잡을 수 없었던 나는, **탁구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늦은 시간에도 연습할 수 있는 친구에게 묘한 질투를 느꼈던 것 같다. 하지만 내 연습에 가장 영향을 미친것도 그 친구였고, 가장 도움을 준 것도 그 친구였다. **탁구장** 역시 주 이용자는 10대 후반~40대 초반 남성이었다. 나는 늘 그 안의 공간이 아닌, 밖의 공간에서 서성거렸다. 오빠가 있는 친구들은 오빠를 따라 몇 번 다녀왔다고 자랑했지만, 나는 오빠뿐 아니라 언니도 없었고 더군다나 남동생은 한참이나 어렸다. 얼른 자라서 그 경쾌한 리듬의 탁구공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하루 종일 넋 놓고 바라보겠노라는 다짐은 오래지 않아 무너졌다. **탁구장**이 생각보다 일찍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사실 지금으로 치면 공간의 규모나 운영에 쏟는 에너지가 수익구조상 적합한 구조는 아니었을 것이다. 오늘날 **탁구장**을 보아도 그렇다. 대부분 행정에서 운영하는 문화체육시설이나 탁구동호회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설 **탁구장**은 찾아보기 어렵다.

4 .indd 46 2022-03-23 5:37:52

당구장.

당구장은 탁구장이 없어지고 한참 후 1990년대에 생겼다. 탁구장에 비해 당구장은 조금 더 어른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인식이 되었다. 사실 이용자층을 살펴볼 때 탁구장을 이용하던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의 남성 보다는 20대 후반 이상의 남성들이 주로 이용했던 공간이다. 이때만 해도 당구장은 남성들의 점유물이었다. 2000년대 들어 젊은 층이 많이 빠져나간 마을(금능리)을 생각해 본다면, 이때까지만 해도 마을 안에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의 역할은 컸다고 볼 수 있다. 당구장 경험자의 말을 빌리자면, 간혹 당구내기의 부작용이 마을을 들썩일 때도 있었단다. 대부분 게임비 내기였고, 술값 내기였는데 어쩌다 과할 때가 있었던 것 같다. 당구장에는 다른 마을에서도 많이 찾아왔다. 그 당시 당구장은 영화나 텔레비전을 통해 불건전한 모습으로 비춰졌다. 하지만 마을 안에 위치해서일까? 그 앞을 지나면서도 그런 생각은 하지 못했던 것 같다. 청소년 출입금지구역이어서 그 앞을 지나면서도 감히 설레는 공간은 아니었다. 물론 그 안이 궁금하긴 했다. 2000년대 이후 당구가 스포츠로 분류되며 당구장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하긴 했지만, 그 전에 금능 당구장당구장은 문을 닫았다.



< 만화방, 비디오방 공터 >



< 탁구장 공터 >



< 당구장 공터 >

에필로그

돌이켜보면 오랜 시간 동안 금능리만큼 다양한 문화, 예술, 체육의 기억을 공유하고 있는 마을도 드물지 않을까 싶다. 비록 개인이 운영하던 공간이었지만 그만큼 공유공간에 대한 갈증은 마을 안에서 끊임없이 표출이 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공유공간의 주인공은 늘 남성이었지, 여성은 속하지 못하였다. 누가 남성과 여성을 갈라놓은 것도, 공간 안에 여성은 출입금지라고 써 놓은 것도 아니었다. 사회의 구조와 분위기가 그리 만들었다. 그렇게 밀려난 여성들은 '불턱'에서, '밭'에서 연대를 하였다. 혹은 공간이 아닌 '그릇제', '쌀제'같은 공동체를 꾸려나가며 마을의 균형을 이루었다. 모든 존재가 시공간의 그물에 갇혀 살아가고 있다고 할 때, 우리는 그 어느 쯤에서 이 시공간을 기억하고 있을까? 혹은 공간 안쪽과 바깥쪽의 다른 기억을 품고 있지는 않을까? 분명한 것은 이런 공간을 대체할 공간이 마을 안에서도 끊임없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ㅅ·IN

4 .indd 47 2022-03-23 5:37:54

금능마을의 맛과 멋, 그리고 쉼

조사 및 정리 | **한명희** · 지도 그림 | **이민유**



01 | **금능제면소** | 한식 | 금능길 47 | 064-799-1919
02 | **금능이모네** | 죽 | 금능길 55 | 064-796-5222
03 | **소사오름** | 커피, 디저트 | 금능길 61 | 010-9906-9297
04 | **섬고래** | 일식 | 금능길 65 | 010-8309-5481
05 | **섬아시** | 한식 | 금능길 68 | 064-796-7607
06 | **마크사이공** | 베트남음식 | 금능길 79 | 010-9175-5161
07 | **금능해장국** | 해장국 | 금능길 85 | 0507-1385-7755
08 | **파라토도스** | 커피, 디저트 | 금능길 87 | 0507-1310-4331
09 | **닻별** | 커피, 디저트 | 금능길 89 | 010-9870-7098
10 | **금능샌드** | 샌드위치 | 금능길 89 | 064-796-8072
11 | **금능길** | 해물라면 | 금능길 92 | 064-796-1052
12 | **금능태왁** | 이태리음식 | 금능1길 2-2 | 0507-1311-1512
13 | **금능이큐테이블캠핑바베큐** | 바비큐 | 금능남1길 6-1 | 010-7414-0187
14 | **제주밥상 살래** | 한정식 | 금능4길 14-1 | 010-2430-6501
15 | **시트리스** | 커피, 디저트 | 금능4길 20 | 010-9878-0406
16 | **금능낙원** | 밀면 | 금능길 27 | 0507-1410-6175
17 | **금능상회** | 해물탕라면 | 금능5길 21 2층 | 010-3407-1048
18 | **수르르** | 양식 | 금능5길 26 | 0507-1382-1569
19 | **피어22** | 딱새우찜 | 금능7길 22 | 064-796-7787
20 | **금능포구횟집** | 물회 | 금능9길 27 | 064-796-9006
21 | **금능반지하** | 호프 | 금능9길 30 | 0507-1333-4337
22 | **봉덕뜨락** | 중식 | 한림로 121-3 | 064-796-6635
23 | **고향역** | 국밥 | 한림로 149-8 | 064-722-7924
24 | **제갈양** | 갈치 | 한림로 155 | 0507-1413-9933
25 | **비양도식당** | 한식 | 한림로167 | 064-796-4030
26 | **전학생** | 커피 | 한림로 176 | 010-7288-8975
27 | **과수원피스** | 커피 | 한림로 176-2 | 010-4692-0403
28 | **크리스피** | 치킨, 버거 | 한림로 201 | 064-796-2012
29 | **금능식당** | 해물, 생선요리 | 한림로 224 | 064-796-1589
30 | **금능자갈** | 한식 | 한림로228 | 064-796-8808
31 | **금능스낵** | 떡볶이 | 한림로 238 | 070-4063-2002
32 | **우리집아점** | 간장새우정식 | 한림로 242 | 010-6705-8006

4 .indd 48 2022-03-23 5:37:55



4 .indd 49 2022-03-23 5:37:55

* 2021년 금능마을 식당 카페 업소 통계

① 주민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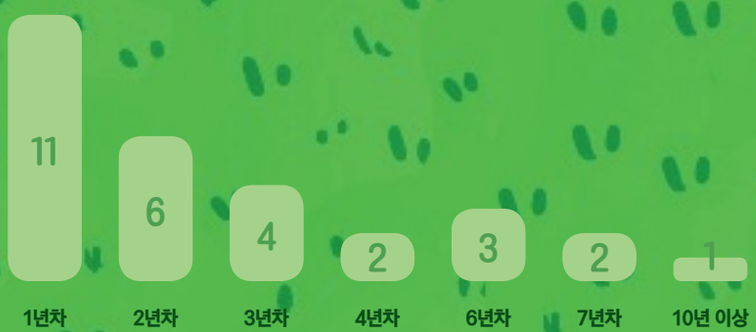


② 마을 거주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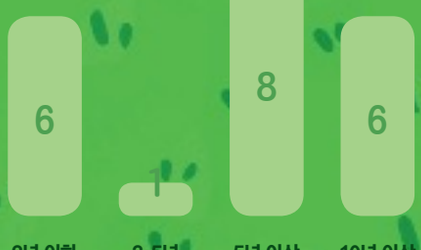


③ 업소 개업 년차





④ 이주 년차





4 .indd 50 2022-03-23 5:37:55

* 금능마을에 하고 싶은 이야기들 (설문에 참여한 업소사장님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마을내 통행이 어려울만큼
주차문제가 심각합니다.
소음이 어쩔 수 없이
다른 업소에 피해를 주게되는
상황을 해결해주세요.

신축 건물이 많아지면서 마을이 모습이
너무 고layer하게 변화하는 것 같아요.
마을이 전체적인 모습을 고려하여
건물이 지어졌으면 좋겠어요.

마을대소사나 행사 정보를
공유해주시면 좋겠어요.

클린하우스가 부족합니다.
마을이 위생을 위해
클린하우스를 많이 지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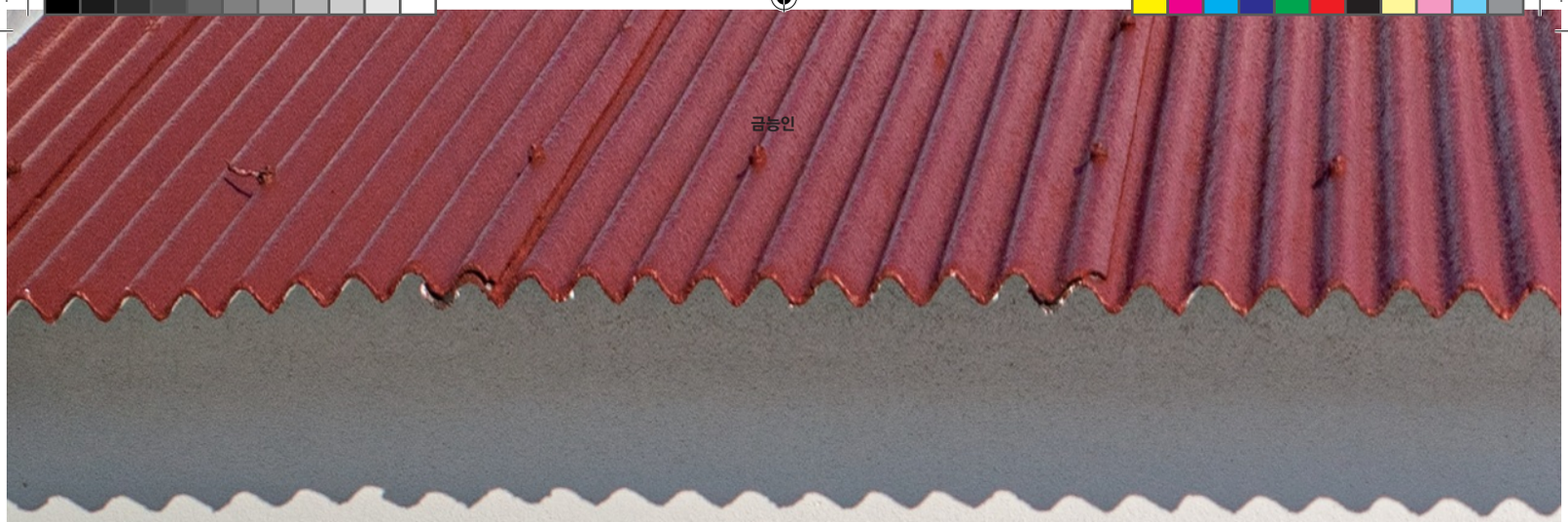
길고양이들이 너무 많아요.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륜차 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을에 보건소가 있으면
급할 때 유용할 것 같아요.

밤에 너무 어두워요.
가로등을 더 많이 만들어주세요.

겨울에 상망할 정도로 사람이 없어요. ^^

4 .indd 51 2022-03-23 5:37:55



2021년 금능리 마을행사 일정표

정리 | **금능리**

일정	행사명	주관
1월	• 능향원 환경정비	청, 부녀회
2월	• 마을제 봉행	금능리
	• 마을 정기총회	금능리
3월	• 어촌계 정기총회	어촌계
	• 어촌계 이장선거 홍준희당선	어촌계
	• 농업용수 정기총회	수리계
	• 톳 수확 및 톳 판매 (~ 4/28)	어촌계
4월	• 농업폐기물 및 헌옷 수거사업	부녀회
	• 천초 및 미역공동작업 (~ 6/10)	어촌계
5월	• 어르신 쌀나눔 행사 (어버이날행사 대체)	청, 부녀회
	• 맛차롱협동조합 창립총회	맛차롱협동조합
6월	• 마을환경 정비	청, 부녀회
7월	• 해수욕장개장 고사 (안전기원제)	금능리
	• 맛차롱상회 오픈	맛차롱협동조합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진흥원 주관 핸드폰교육 실시	어촌계
8월	• 금능리이장선거 (29대이장 송문철 당선)	금능리
	• 해적생물(불가사리, 성게)퇴치 및 이동 작업	어촌계
9월	• 마을환경 정비	청, 부녀회
	• 마을주민 쌀나눔행사 (마을체육대회 대체)	청, 부녀회
10월	• 농업폐기물 및 헌옷 수거 사업	부녀회
11월	• 마을 역량강화교육	금능리 (어촌특화지원센터)
	• 어촌계 어부회 결성 및 바다정화 작업 실시	어촌계
12월	• 김장나눔행사	부녀회
	• 소라드라이브스루 행사개최 (금능해녀협의회)	어촌계
	• 경로잔치	청, 부녀회

4 .indd 52 2022-03-23 5:37:57



2021년 꿈차롱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일정표

정리 | **편집부**

일정	프로그램명 및 세부내용	
3월	• 성인 시창작 교실 (최금진 시인, 매주 화 19:30-21시)	
4월	• 성인 시창작 교실 (최금진 시인, 매주 화 19:30-21시)	
5월	• 성인 시창작 교실 (최금진 시인, 매주 화 19:30-21시)	• 성인 시창작 교실 (김효선 시인, 매주 목 19:30-21시)
	• 아동 시창작 교실 (김진숙 시인, 매주 수 19-21시)	
6월	• 성인 시창작 교실 (김효선 시인, 매주 목 19:30-21시)	• 아동 시창작 교실 (김진숙 시인, 매주 수 19-21시)
	• 성인 독서 동아리 (최금진 시인, 매주 수 19:30-21시)	
7월	• 성인 시창작 교실 (김효선 시인, 매주 목 19:30-21시)	• 아동 시창작 교실 (김진숙 시인, 매주 수 19-21시)
	• 성인 독서 동아리 (최금진 시인, 매주 수 19:30-21시)	• 아동 제주역사 교실 (이윤영 강사, 매주 토 14-16시)
	• 자녀소통 부모교육 (오승주 강사, 매주 월 19-21시)	• 아동 작곡 교실 (고혜린 강사, 매주 화 17-21시)
	• 시 토크 (홍경희 시인, 넷째주 일요일 17시)	
8월	• 성인 독서 동아리 (최금진 시인, 매주 수 19:30-21시)	• 아동 제주역사 교실 (이윤영 강사, 매주 토 14-16시)
	• 자녀소통 부모교육 (오승주 강사, 매주 월 19-21시)	• 아동 작곡 교실 (고혜린 강사, 매주 화 17-21시)
	• 청소년 시창작 교실 (매주 수·목 19-21시)	• 시 토크 (김신숙 시인, 둘째주 일요일 16시)
	• 성인 시창작 교실 (김선재 시인, 5회, 19:30-21시)	• 시 토크 (강방영 시인, 다섯째주 일요일 16시)
9월	• 성인 시창작 교실 (양전형 시인, 매주 월 19:30-21시)	
10월	• 아동 작곡 교실 (고혜린 강사, 매주 화 17-21시)	• 성인 시창작 교실 (양전형 시인, 매주 월 19:30-21시)
	• 행복한 NIE 교실 (김향란 강사, 매주 수 19:30-21시)	• 아동 바둑 교실 (양동림 강사, 매주 목 17-21시)
11월	• 아동 작곡 교실 (고혜린 강사, 매주 화 17-21시)	• 성인 시창작 교실 (양전형 시인, 매주 월 19:30-21시)
	• 행복한 NIE 교실 (김향란 강사, 매주 수 19:30-21시)	• 아동 바둑 교실 (양동림 강사, 매주 목 17-21시)
	• 시 읽기 교실 (김동현 평론가, 매주 토 17-19시)	
12월	• 즐거운 NIE 교실 (김향란 강사, 매주 수 19:30-21시)	• 시 읽기 교실 (김동현 평론가, 매주 토 17-19시)
	• 시 토크 (양민숙 시인, 둘째주 일요일 14시)	• 시 토크 (양영길 시인, 셋째주 토요일 14시)
	• 『금능인』 4호 발간	

4 .indd 53 2022-03-23 5:37:58

금능리 조직도

제공 | **금능리**

이장
송문철

노인회장
박용진

운영위원장
송문철

감사
양승우

청년회장
김남규

부위원장
고석주

감사
조미혜

부녀회장
문미열

이사무장
노진영

어촌계장
홍준희

운영위원
문영남 · 양익수 · 김성진 · 고창균 · 홍한민 · 박윤성 · 한성종

자조동장
양영재

자립동장
양제우

협동동장
고남호

근로동장
김정욱

4 .indd 54 2022-03-23 5:39:14

금능마을 사진

사진 | **한명희**









4 .indd 55 2022-03-23 5:39:18

편집후기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올해 가치 있었던 일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봤다. 바로 생각나는일이 없는거 보니 코로나로인해 나도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다.
1월부터 소소히 진행해온 금능인 소식지가 코로나 시국에서도 발간하게 되었으니 금능인 소식지는 나에겐 안겨준 올해 마지막 선물인거 같다.

편집위원 **한명희**

금능밥상 지면에 '멜 요리'를 다루면서 시어머니가 알려주는 요리법으로 멜국, 멜조림, 멜튀김을 만들고 멜 관련 에피소드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멜젓 사진을 찍기 위해 몇 년 전 금능원담에서 남편에 호출로 처음 잡아 보고 처음 담가본 멜 젓갈 항아리를 열었보았습니다. 살이 물러지지 않고 적당히 잘 삭혀진 멜젓의 짭짤한 맛에 푹 빠져 밥도둑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금능마을에 산다는 건 정말 행운인 것 같습니다.
금능마을을 알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금능인 연간지를 읽어보라고 자신있게 권합니다.
금능인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금능 마을에 소소한 행복에 서서히 젖어 들어보면 좋을꺼 같습니다. 위로와 힐링이 되는 금능마을로 많이 놀러오세요^^

편집위원 **이윤영**



『금능인 4호』에 아름다운 금능리를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한 금능포구와 금능리의 4개동은 미력하나마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로 담았으니 사실과 다르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좋게 읽어 봐 주시기 바랄께요.

편집위원 **차영옥**

창간호를 펴내고 설레는 마음으로 책을 나누어주던 일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네 번째 금능인을 묶습니다. 작은 마을에 무슨 뉴스거리가 그리 많을까 싶지만 해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가득한 걸 보면 서로 어울려 살아가는 일이란 끝없이 샘솟는 샘물 같습니다. 앞으로도 맑고 싱그러운 이야기들이 더욱 넘쳐나길 소망하며 2021년의 금능마을을 갈무리합니다.

편집위원 **홍임정**

'금능인' 원고를 쓸 때마다 몹시 불안해진다. 기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잃어버린 채, 어느 한 지점만을 나열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자괴감이 든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마을의 공간과 시간을 기록하는 이유는, 빈약한 기억마저도 사라질까 두려운 마음이 더 크기 때문이다.
코로나 상황으로 편집회의를 자유롭게 하지 못했다. 원고를 통해 현장에서 애써주신 편집위원님들을 떠올린다. 그리고 감동받고 감동한다.
늘 그렇듯이 원고 마감일을 훌쩍 넘겨 가장 늦게 원고를 제출하는 사람은 나이기에, 이 글을 끝으로 얼른 편집위원님들과 뒤풀이하며 네 번째 '금능인'을 훌훌 털고 싶다.

편집위원장 **양민숙**